



제7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추모문화제 학술심포지엄

제7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추모문화제 학술심포지엄

# 민족·여성해방을 외치며 세계를 누빈 한국여성들



제7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추모문화제 학술심포지엄

## 민족·여성해방을 외치며 세계를 누빈 한국여성들



( )

(025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53 사속재회관 402호  
전화 02)924-0660  
메일 herstory@herstorykorea.org  
홈페이지 www.herstorykorea.org  
유튜브 항일여성TV

\*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항일여성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간,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230-6110-11  
예금주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최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관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후원 : 국가보훈처

일시 2021년 11월 3일 15:00 - 17:00

참여방법 zoom

회의참가 <https://us02web.zoom.us/j/5405691321>

\* 향후 유튜브 채널 <항일여성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사말

2021년 10월 현재 국가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모두 16932명, 그중 여성은 540명입니다. 7년 전 본회 출범 당시와 비하면 여성 유공자 수가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아직 전체 유공자의 3.2%에 불과합니다. 이는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독립운동에 대한 기존 역사적 해석이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회는 2014년 출범과 함께 부설 연구소를 동시 설립하여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학술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담은 책 『여성사로 읽는 항일독립운동』을 출간하기도 하였으며,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오늘 그날 여기에>의 부대행사로 매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왔습니다.

올해 학술심포지엄은 일제강점기 한국 여성의 해외 독립운동 활약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러시아, 만주, 미주 등지에서 활동한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개별 주제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께 연구를 부탁드렸습니다. 기존 연구의 빈칸을 채우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비로소 한국독립운동사가 완결되고 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비대면 줌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본회 연구소 신영숙 소장님의 노고가 컸습니다. 또한, 훌륭한 발표 자료를 준비해주신 정철훈 선생님, 이명화 선생님, 김형목 선생님, 그리고 성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해주신 강정숙 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연구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있는 거울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2021. 11.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 희 선 드림

## 목 차

### ■ 발표문

- I. 알렉산드라를 찾아서 -16통의 편지와 한 번의 만남 ..... 7  
(정 철 훈 시인·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II. 미주지역 여성독립운동가의 항일여정 ..... 31  
(이 명 화 국가보훈처 연구원)
- III. 중국 동북지역 항일여성들의 인생향로 ..... 49  
(김 형 목 사단법인 선인역사문화연구소)

### ■ 토론문

- I. 강 정 숙 ..... 71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제7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추모문화제 학술심포지엄

## 민족·여성 해방을 외치며 세계를 누빈 한국 여성들

일시 : 2021년 11월 3일(수) 15:00~17:00

장소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온라인 비대면  회의

사회 : **신영숙**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 시 간           |     | 내 용                                                                                                                  |
|---------------|-----|----------------------------------------------------------------------------------------------------------------------|
| 15:00 ~ 15:05 | 5'  | 개회사. <b>김희선</b>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 15:05 ~ 15:35 | 30' | 발표 1. <b>정철훈</b>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 15:35 ~ 16:05 | 30' | 발표 2. <b>이명화</b> 국가보훈처 연구원                                                                                           |
| 16:05 ~ 16:35 | 30' | 발표 3. <b>김형목</b>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연구이사                                                                                    |
| 16:35 ~ 17:50 | 25'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br><b>김희선</b>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br><b>강정숙</b>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br><b>신영숙</b>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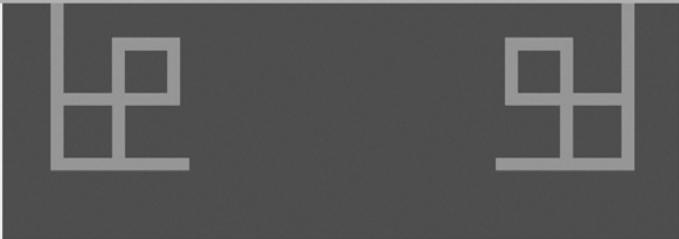


발표문  
I

알렉산드라를 찾아서  
- 16통의 편지와 한 번의 만남

정 철 훈

시인·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알렉산드라를 찾아서 -16통의 편지와 한 번의 만남

정 철 훈 (시인·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편지지에 깨알같이 써 내려간 키릴문자는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편지지 상단엔 낫과 망치가 새겨진 소련 국기가 자그마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손으로 휘갈겨 쓴 루코피시(рукопись: 手記)의 현란한 필기체는 종잡을 수 없었다. 루코피시 앞에서 아득함은 배가되었다.

편지는 그걸 쓴 사람의 인생 역경을 함축하고 있었다. 발신자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었고 그 질문을 앞에 둔 수신자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 라고 고민하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그늘을 숨기고 살아간다. 발신자는 그걸 털어놓으라고 종용하고 있었다. 발신자는 가차 없이 질문을 던졌다. “보리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이 질문 앞에서 보리스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을 것이다. 보리스가 만약 허위로 대답하면 발신자가 단박에 알아차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편지를 해독해갈수록 보리스의 고뇌가 느껴졌다. 하바롭스크 지역박물관에서 입수한 편지는 모두 16통이었다. 16통의 편지를 연대순으로 나열해본다.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스탄케비치(오른쪽)와 첫 남편 마르크 이오시포비치 스탄케비치.

| 순서 | 발신인     | 수신인     | 작성일   |        |
|----|---------|---------|-------|--------|
| 1  | 리인섭     | 오가이 보리스 | 1957. | 4. 21  |
| 2  | 베르친코바   | 오가이 보리스 | 1957. | 12. 26 |
| 3  | 오가이 보리스 | 리인섭     | 1958. | 1. 18  |
| 4  | 리인섭     | 오가이 보리스 | 1958. | 2. 1   |

| 순서 | 발신인       | 수신인      | 작성일   |        |
|----|-----------|----------|-------|--------|
| 5  | 나탈리아 그리네바 | 오가이 보리스  | 1959. | 1. 1   |
| 6  | 박청림       | 오가이 보리스  | 1963. | 9. 3   |
| 7  | 박청림       | 오가이 보리스  | 1963. | 11. 3  |
| 8  | 박청림       | 오가이 보리스  | 1965. | 1. 1   |
| 9  | 리인섭       | 울라 이바노브나 | 1965. | 1. 1   |
| 10 | 리인섭       | 오가이 보리스  | 1965. | 2. 19  |
| 11 | 김세일       | 오가이 보리스  | 1965. | 9. 27  |
| 12 | 비흠스키      | 오가이 보리스  | 1966. | 2. 26  |
| 13 | 비세노비치     | 오가이 보리스  | 1966. | 3. 13  |
| 14 | 비흠스키      | 오가이 보리스  | 1966. | 5. 2   |
| 15 | 오가이 보이스   | 비흠스키     | 1966. | 5. 9   |
| 16 | 리인섭       | 오가이 보리스  | 1967. | 11. 12 |

발신자들은 하나같이 오가이 보리스(이하 보리스)에게 집중적으로 서신을 보냈다. 보리스는 러시아 내전 당시 극동 지역 방어전의 영웅인 한인 최초의 볼셰비키 알렉산드라 김 페트로브나 스탄케비치가 남긴 두 아들 가운데 둘째로, 알렉산드라와 그의 두 번째 남편 오가이 와실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보리스는 알렉산드라와 그의 첫 남편인 폴란드 출신 마르크 이오시포비치 스탄케비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 왜제슬라브 마르코비치(이하 왜제)와 1918년까지 친형제처럼 살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백위군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한 후 하얼빈에 살고 있던 친부 스탄케비치가 왜제를 데려갔고 형제는 평생 해후하지 못했다.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10월 혁명 당시 극동인민위원회 외무위원으로 활동하다 1918년 백위군과의 내전에서 죽음을 맞았지만 1950년대까지 그의 눈부신 활동상이나 가족관계 등 세부 정보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발신자들은 알렉산드라의 일대기를 복원하기 위해 오가이 보리스에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자칫 '신상 털기'라는 오해를 빚을 수 있기에 발신자들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오가이 보리스에게 첫 편지를 보내는 리인섭은 보리스의 입장을 존중하는 세심하고도 사려 깊은 문체로 서두를 시작했다.

오가이 보리스 와실리에비치 씨!

안녕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어머니 수라 페트로브나의 동지입니다.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지……. 1918년 나는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체포당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그때 총살당

했지만 나는 도주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당신을 찾아다니다가 끝내 침켄트 시민주소안내소를 통하여 당신을 찾아냈으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사업을 하던 동지들은 모두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옴스크와 스베르들로프스크에서 한인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우랄노동자동맹>을 조직했습니다. 현재 그것이 <조선노동당>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조선정부는 <한인사회당>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어머니는 조선사회주의운동의 첫 번째 조직자이며 지도자인 것입니다.

보리스 와실리예비치 씨, 당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 소책자를 쓰고자 하는데 당신 어머니의 전기를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출생일, 사망일, 그리고 만약에 사진이 있다면 보내 주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사진이 없다면 크질오르다에서 <리 이반 마나로비치>에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분에게서 받아서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또 당신의 어머니가 남긴 유고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있습니까. 사업에서의 당신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약간 알려 주겠습니다. 내 나이는 벌써 69세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아이들도 있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은 후 답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답장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편지가 온다면 당신의 어머니와 다시 만나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57년 4월 21일

우즈베키공화국 안지잔에서 리인섭

‘수라 페트로브나’는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스타нке비치 (1885~1918)의 어린 시절 예명이다.

편지를 보낸 ‘리인섭’(1888~1982)은 적위군과 백위군 간의 내전이 치열하게 전개된 1918년 9월 하바로프스크에서 알렉산드라와 함께 백위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극적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진 혁명동지이다. 리인섭은 당시 알렉산드라의 전기를 쓰고 있었기에 알렉산드라에 대한 모든 증언이나 정보에 목말라 했다. 그런 만큼 리인섭이 1957년 카자흐스탄 침켄트 시민주소안내소를 통해 알렉산드라의 아들 오가이 보리스 와실리예비치의 주소를 찾아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보리스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인물은 리인섭이다.

알렉산드라의 삶을 온전하게 복원하고 싶었던 리인섭은 1956년 모스크바의 봄을 맞아 알렉산드라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공개적인



알렉산드라의 두 번째 남편 오가이 와실리.



알렉산드라의 첫 아들 왜쎄슬라브(오른쪽)과 둘째 아들 오가이 보리스.

첫 작업은 리인섭이 1957년 3월 28일 <프라우다>에 기고한 알렉산드라의 업적에 관한 짧은 글이었다. 기사가 실린 직후인 1957년 5월 7일 그는 뜻밖의 편지를 받는다. 알렉산드라의 동지이자 소련공산당 하바로프스크 변강위원회 고문서 보관소장 엘리자로바가 보낸 편지였다.

1927년 하바로프스크의 외국문출판사인 「크니지에젤로」에서 한글로 출판된 「십월 혁명 십주년과 소베트 고려민족」 가운데 ‘한인사회당 적위군’ 편에는 김수라에 대한 최초의 사진과 함께 약

간의 기록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책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 입구에 있는 레닌박물관 혁명전시실에 전시되었으며 동시에 하바로프스크 역사박물관에는 특별히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을 추모하는 개인 전시실이 설치되어 그녀의 사진과 소책자, 기타 문건들이 전시되고 있었던 것을 스탈린 개인숭배 당시에 ‘한인사회당’ 당원들을 반혁명분자라고 처리할 시에 개인 전시실까지 없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리인섭은 즉각 엘리자로바에게 답장을 보낸다. 알렉산드라 일대기를 집필 중에 있으며 필요하다면 사진 자료를 보내겠다는 간단한 내용이었다. 그러자 1957년 7월 1일 엘리자로바는 리인섭에게 쓴 답장에서 특별한 제안을 한다.

소련공산당 하바로프스크 변강 위원회는 하바로프스크 아무르 공원에 후세에 전할 알렉산드라의 추모비를 건립함에 있어 당신의 도움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추모비라니! 리인섭이 뭘 듯이 기뻐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리인섭이 그토록 고대했던 보리스의 답신은 오지 않았다. 얼마나 속이 탔을 것인가. 답장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답장을 받은 것은 해를 넘긴 1958년 1월이었다. 리인섭이 편지를 보낸 지 무려 8개월이나 지난 후였다. 왜 보리스는 8개월 만에 회신을 보냈던 것일까.

존경하는 리인섭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40여 년이나 지난 후 어머니 수라 페트로브나에 대하여 이야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사람이었으며 인민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어머니의 일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편지를 아주 반갑게 받았으며 당신의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그 때 나는 8살(1918년 당시: 필자)이었으며 그 후에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1. 김수라의 출생 시기 (회상과 이야기를 종합해서)

김수라는 1885년 러시아 연해주에 어느 한 촌 빈곤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촌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김수라를 그 당시 블라디보스톡에서 살던 〈추프로프〉 가정에서 데려다 교육시켰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市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했지만 공부를 더 계속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라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경험했으며 후에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과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선진적인 노동자들과의 접촉이 자본주의 압박에서 노동자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상을 형성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수라는 아주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노동자들은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노동자들의 생활에서 어떤 불행이나 불만을 알면 그녀는 힘자라는 데까지 도움을 주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크게 만족시켰습니다. 그녀는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생활은 행복이 없었습니다. 남편 스파게비치는 그녀와 삶의 목적이 정반대였으며 또 그녀에게 짐승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대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의 곧은 정신만이 이 곤경을 견뎌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김수라는 남편 스파게비치와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2. 김수라에게 자식이 둘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전에 골리온코에게 말한 것을 반복합니다. 할머니(보리스를 보살핀 러시아인 보모: 필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 백위군 깔미꼬프 정벌대의 재판부에서 심문을 받을 때 보모 할머니와 나의 생명에 위험이 생겼으며 그때 어머니가 아들 둘이 아니라 딸 둘이 있다고 했으며 내 추측으로도 어머니는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김수라에게 아들이 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알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3. 우리(보모 할머니, 왜쎄슬라브,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바로프스크 칼마르크스 거리와 뽀포프스키 거리 이층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이미 〈골리온코〉에게 대답한 바 있습니다.

#### 4. 어머니와 같이 활동했던 〈골리온코〉의 수필을 읽어 본 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지, 수필을 구할 수 있다면 보내 주십시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편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부를 전하면서

1958년 1월 1일

까자흐공화국 침켄트시에서 오가이 보리스 와실리에비치

편지에서 하나의 문장이 가슴에 와 닿는다. “어머니의 일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삶을 두고 많은 이설(異說)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알렉산드라의 짧은 생애엔 인간 현상이 보여주는 온갖 풍경이 들어있다 온갖 풍경이야말로 모든 인간을 관통하는 명징한 징후이다.

보리스의 답신은 그 자신에게 깃든 우수어린 비밀을 느끼게 한다. 알렉산드라의 가족사는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리인섭은 그 베일을 벗기고자 보리스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하지만 질문과 답변이 계속될수록 이 걸출한 여성혁명가는 비애와 상처를 간직한 가련의 대상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한 인간의 생애를 복원하는 일은 영광과 상처라는 양면성을 분별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새로운 사실은 질문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발굴되지 않았다. 리인섭은 보리스의 목소리를 통해 알렉산드라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보리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리인섭은 다시 편지를 보내 보리스를 다그친다.

존경하는 오가이씨에게

반갑게 당신에게서 첫 소식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이미 쓴 바와 같이 나는 오래 전부터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많은 시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폴리온코>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도 당신 어머니를 하바롭스크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시기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김수라의 조카와 연락을 취하게 되어 그가 김수라의 일생에 대한 정보를 약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도 역시 자세한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폴리온코가 그의 정보에 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폴리온코가 <극동> 잡지 1957년 4월호에 쓴 수필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수필은 내가 잡지에서 발췌한 것이므로 읽은 후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필에는 당신이 준 정보와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당신이 어머니의 일생에 대해서 직접 수필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을 위한 것이니 당신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당신의 유년 시절 기억들, 김수라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야기, 친척들이 하던 이야기 등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략)

나는 당신에게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대합니다.

1. 될 수 있으면 김수라의 아버지가 벌써 1880년, 혹은 더 일찍이 극동지역의 어느 촌에서 살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연해주 남부 지방인지 아니면 한국과의 경계를 가진 해안 지방인지)
2. 당신의 딸로는 김수라의 어머니가 어려운 생활과 노동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이 때문에 김수라가 추프로프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빈곤에 따른 가정 형편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는지가 궁금합니다.
3. 하바롭스크에서 당신과 같이 살던 할머니가 그녀의 어머니입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사실, 당신이 발견한 사실, 친척들에게서 들은 사실, 김수라와 같이 활동한 사람들 가운데 골리온코의 글을 읽고 당신에게 어떤 새 소식을 전해 왔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라를 심문할 당시 그녀가 딸만 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유히체크>는 김수라가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하나 그 역시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당신의 행복을 빌며...

1958년 2월1일 리인섭

모든 게 안개 속에 있었다. 실체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그건 아지랑이를 붙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손을 대면 사라지고 마는 연기처럼.

그들은 어설픈게 묻고 있으며 어설픈게 대답하고 있다. 모든 것은 불확실했다. 사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사물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다. 사물을 깨워 목소리를 선사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이다. 사물에게는 인식이 없다. 사실도 마찬가지다. 사실은 인식이 없다. 하나의 사실에 전후관계를 보태어 입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후대 사람의 몫이다.

보리스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리인섭 뿐만 아니었다. 올리나 이바노브나, 베르친코바, 나탈리아 그리예바, 비세노비치, 김세일, 박청림, 비흠스키, 바비체프, 골리온코, 연성용, 예카, 게라시모와, 표도레치, 보로가비치, 보디리, 추프로프, 스탈포파, 엘리자로바...

그들은 알렉산드라의 혁명 동지이거나 동시대의 역사학자 혹은 작가이나 먼 친척들이었다. 그들은 알렉산드라의 일대기를 복원하려는 신념으로 보리스에게 경쟁적으로 서신을 보냈다. 무엇보다도 재소한인사회는 살아있는 전설이 필요했다. 알렉산드라는 재소한인에게서 물론 소련에 산재한 수많은 소수민족에게도 영웅적인 존재였다.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보리스는 비슷비슷한 질문에 반복적으로 시달린다.



왼쪽부터 오가이 스타니슬라브 보리소보치(알렉산드라의 손자), 오가이 세료자(알렉산드라의 증손자), 오가이 보리스(알렉산드라의 둘째 아들).

편지는 끊이지 않고 도착했다.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에게서 어머니에 관한 질문을 받는 보리스의 심정이 어떠했을 까. 성실한 답변만이 어머니의 명예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만 확실한 건 보리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었다는 점이다.

리인섭은 1957년 4월 21일자 편지를 시작으로 1967년 9월 12일에 이르기까지 만 10년 동안 모두 5통의 편지를 오

가이 보리스에게 보냈다. 리인섭의 편지 문체는 매우 정중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심사숙고가 배어 있었다. 오가이 보리스가 리인섭에게 답장을 보낸 것은 리인섭의 이러한 태도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여기서 ‘신뢰’라 함은 스탈린 공포정치 하의 억압을 반영하는 말이다. 스탈린 시대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불신의 시대였다. 불신을 극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는 데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때는 스탈린 체제가 모든 소련국민들에게 침투되어 있었다. 스탈린 체제는 남몰래 당국에 고자질하거나 꾀속말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고자질과 꾀속말이 대숙청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쉽사리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들은 스탈린 체제의 공적 규범에 충돌하는 정보와 견해, 종교적 믿음, 가족의 가치관과 전통, 사적인 생활양식 등을 모두 숨겨야 했다. 심지어 러시아 내전(1917~1923) 기간 동안 백위군에 가담한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지, 외국에 가족이나 친척이 살고 있는지 여하에 따라 그들은 위협에 처해지거나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조차 ‘입조심’은 생활의 신조가 되었고 ‘일기’를 쓰는 일조차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였다. 누구를 막론하고 ‘반 소비에트적’이라고 낙인찍히면 언제든지 체포되어 굴라그(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렇기에 그들은 일기, 연대기, 작업일지, 연감, 스크랩북 등 사적인 기록을 가능한 한 남기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만약 그런 문건들이 압수당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의 단초에 밀줄이 그어지고 ‘반 소비에트적인 문건’이라고 판명되는 순간, 모든 건 끝장이었다.

오가이 보리스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신상에 대해 묻는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답장을 쓰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매우 두려운

일이었다.

보리스의 답신에 따르면 왜쎄슬라브는 1941년 모스크바 항공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인적 보증서를 써줄) 어머니 알렉산드라의 여동생 마리아 파블로나 채(채행길의 부인)의 모스크바 집으로 찾아왔지만 항공대학에 입학할 포기하고 아버지의 조국인 폴란드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렉산드라의 첫 아들 왜쎄슬라브(오른쪽)과 둘째 아들 오가이 보리스.

마리아 채 남편 채행길은 본시 조선인 순회연극단 (남사당패) 단원 중 어린배우(美童)로 대단재 촌에 와서 공연하다가 당시 그 촌 토호 괴수 안사장이라는 악당에게 억류를 당하여 소위 양자라고 하고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착취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906년 알렉산드라가 피신하여 중국령 산차거우-동령현 남가우령(고려촌)에서 조선 애국자 채광륜을 만나서 그의 소개로 채행길을 비밀 통신원으로 이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알렉산드라의 소개로 마리아 김 처녀와 채행길 총각이 자유결혼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호촌(얼마우재)들은 여호촌 사람들과는 결혼도 아니하고 독신자들은 ‘보토재’니 ‘아재비’니 하고 멸시에 천대를 받던 처지에서 알렉산드라동생, 김노예 딸, 추프로프의 누이가 남의 집 ‘보토재’ 총각한테 시집을 가게 된 것은 실로 몽상도 못할 사변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변이었습니다.

그들 부처[채 마리아 부부]는 1922년에 해방된 연해주에서 농촌 소비에트 대의원으로 천거되었고 대단재 농촌의 브리모르스키(연해주) 빨치산에 조직자들로 참가하였고 김 노예가 예전에 살던 집을 유치원으로 내놓고 유치원을 알렉산드라로 명칭하고 유치원 지도자로 마리아 채가 사업하게 되는 영예를 가지는 행복한 혁명가를 후대에 자랑하였습니다.<sup>1)</sup>

이런 전후 관계를 알고 있는 리인섭이기에 소련 땅에 살고 있는 알렉산드라의 유일한 혈육 오가이 보리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는 그의 손은 얼마나 떨렸을 것인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편지에 등장하는 ‘리 이반 마나로비치’는 보리스의 친부인 오가이 와실리 와실리에 비치와 그의 첫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딸이다.

리인섭의 첫 편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957년이라는 연도이다. 1957년은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가 스탈린 개인숭배문제를 제기하며 스탈린 격하운동을 선언한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가 열린 이듬해였다. 1956년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쇼프는 장장 7시간에 걸친 비밀연설을 통해 스탈린의 개인숭배 문제를 조목조목 적시하며 정면

1) 리인섭이 1966년 고려인 작가 김세일에게 보낸 편지.

으로 비난했다. 그는 스탈린이 권력을 남용하고 테러를 동원해 공포정치를 자행함으로써 스스로를 우상화시켰다고 폭로했다.

비밀연설이긴 했으나 내용은 즉각 새어나갔다. 흐루쇼프는 모스크바 주재 외국기자단과 각급 학교의 사상 및 철학 담당교수들을 대회장에 초청함으로써 비밀연설이 비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켰다. 비밀연설은 죽은 스탈린의 망령과 살아 있는 흐루쇼프 간에 펼쳐진 기괴한 싸움이었다.

스탈린 격하운동은 소련은 물론 동구권에도 일대 혁명을 몰고 왔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지식인들이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스탈린 동상이 박살났고 낫과 망치를 지워버린 국기가 도처에서 펄럭였다. 폴란드 시인 안톤 슬로넴스키는 1956년 3월 소집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언어에 대해 그 본래의 의의와 가치를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서 공포의 시대가 몰고 왔던 신화의 파편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모스크바의 봄은 1937년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극동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재소한인(고려인)에게도 일시적이거나 해빙을 가져왔다. 강제이주 이후 20년 만에 찾아온 명예 회복의 기회였다.

모스크바의 봄이 없었다면 리인섭의 편지는 쓰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알렉산드라 김 스탄케비치라는 한 걸출한 인물에 대한 수많은 증언도 발굴되지 못하고 영원히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리인섭은 알렉산드라의 전우이자 충실한 기록자이며 전기 작가였다. 그는 여러 혁명 동지에 관한 회상기를 남겼으나 가장 애착을 가진 인물은 알렉산드라였다. <러시아 3대 혁명에 참가한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스탄케비치를 추억하면서>는 그가 쓴 원고지 400장 분량의 일대기다. 하지만 그가 알렉산드라와 함께 한 기간은 1917년 6월부터 1918년 9월까지 1년 남짓에 불과하다.

리인섭은 누구인가. 리인섭의 본명은 이용연이다. 1888년 평남 평양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평양 대성소학교를 졸업하고 17세 때인 1905년 잠시 평남 맹산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부친이 1907년 김관수의병대에 가담한 일로 체포되어 구류처분을 받자 교사를 그만두고 김관수의병대에 들어가 서기 일을 맡아본다. 1910년 한일병탄 직후 일본헌병대의 검거를 피해 압록강에서 뗏목운송 잡부 일을 하다가 다시 국내로 잠입해 삼수, 북청,

단천, 길주, 경흥을 거쳐 두만강 건너 만주 훈춘으로 망명한 그는 25세이던 1913년 블라디보스크에 살고 있던 장기영과 김성무<sup>2)</sup>의 권유로 러시아 연해주 지신희 마을로 건너갔으나 임시 거주증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연추,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니콜스크 감옥으로 압송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만난 홍후즈 두목 왕더린의 도움으로 중국 여권을 취득해 석방되었다. 이후 여권 상의 이름인 리인섭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가 니콜스크에서 이갑, 홍범도, 안공근 등을 만난 것도 석방 직후의 일이다. 1914년 겨울, 이갑 등의 소개로 추풍 한인마을 재피거우의 한인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그는 일본 밀정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되기 직전 블라디보스토크로 피신, 이듬해 4월 캄차트카 어장에서 연어잡이를 하다가 통사 김병학이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민스크 전선으로 송출하는 인력으로 모집되어 시베리아를 군용열차로 횡단하던 중 계약서도 없이 전선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옴스크 역에서 내려 살 길을 모색한다. 옴스크에서 한인 정치망명자 오성묵, 안경억, 최영훈 등과 함께 ‘국민회’에 가입하고 서기로 활동하던 그는 1917년 2월 혁명 당시 옴스크 한인청년 30여명과 함께 청년회 ‘드루즈바(우정)’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맡는다. 리인섭이 그해 6월 말 예카테린부르크 볼셰비키 당 기관의 지침에 따라 원동으로 파견되어 가는 알렉산드라를 만난 것도 옴스크였다.<sup>3)</sup>

알렉산드라의 지도에 따라 친목단체 격인 ‘드루즈바’를 ‘우랄노동자동맹’으로 재편한 그는 알렉산드라와 함께 하바롭스크에 진출해 원동 소비에트 정권 수립에 참가한다. 그러나 러시아 내전이 절정에 달한 1918년 9월 그는 알렉산드라와 함께 백위군의 공격을 피해 하바롭스크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알렉산드라는 백위군에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리인섭은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리인섭은 알렉산드라 사후인 1919년 4월 대한국민의회가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한 윤해, 고창일의 백위군 전선 돌파를 도왔고, 그해 6월 한인사회당 대표로 모스크바 코민테른에 파견된 박진순, 박애, 이한영이 모스크바로 갈 때 백위군 전선의 돌파를 도왔다.

2) 장기영과 김성무는 1915년 이동휘와 함께 중국 왕청현 나자구에 동립무관학교를 설립한 주역이다.

3)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는 제국주의 전쟁 시기에 많은 한인과 중국인들과 함께 우랄로 갔다. 거기에서 페름, 예카테린부르크, 나제진스크 등 입업국에서 일한다. 페름시에서 볼셰비키 공산당에 입당.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주도 하에 1917년 예카테린부르크와 옴스크 한인들을 중심으로 우랄노동자동맹이 조직됐고 후에 이 조직의 지도자 중에서 제1 코민테른 지도자들이 나왔다. 1917년 2월 예카테린부르크 볼셰비키 당 위원회는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를 극동으로 파견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돌아온 알렉산드라는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알렉산드라는 1917년 10월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현재 라조 구역) 주 볼셰비키 당 대표였다. 1918년 알렉산드라는 하바롭스크로 이주, 그곳에서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볼셰비키) 시 조직 비서 및 회계원으로 선출되었고 시 소비에트 외교부 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1957년 바비체프의 회상)



리인섭(1888~1979)

리인섭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1919년 11월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입당(불세비키). 1920년 봄 옴스크 소재 시베리아국 고려부에서 기관지 『새벽북』 편집. 그해 가을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크바당위원회 중국인부에서 활동. 1921년 극동공화국 외무위원회에서 활동. 1922년 치타에서 통역 및 정보관. 1922~25년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제9소비조합 당 세포 서기. 1925~29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소련공산당 연해주위원회 선전선동부원. 1929년 동청철도 분쟁 당시 소련군 연해주군단 참모부. 1932년 국경수비군 참모부. 1933~36년 국경수비대 감시소장.

리인섭의 운명은 1937년 스탈린의 명령에 의한 고려인 강제이주를 전후로 뒤바뀐다. 1936년 3월 하바롭스크에서 소련공산당 출당 처분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그는 이감되어간 21호 감방에서 김아파나시, 김미하일, 최태열, 홍파, 박일리아, 장도정, 김진, 홍도 등 고려공산당 상해파 인물들을 만난다. 그해 9월 ‘일본 정탐’ 혐의를 받아 카자흐스탄으로 5년간 유배에 처해진 그는 이듬해 단행된 강제이주의 여파에 따라 크즐오르다 구역 내부위원회 정치부에 정배꾼(정치 망명자)으로 등록하고 정배꾼들의 유배지인 출락크-아리크춘(땅굴춘)에 거주하면서 1939년 고려인 역사학자이자 문학가인 북우(北愚) 계봉우를 만나 함께 회상기를 쓰기로 약속하고 계봉우는 <꿈속의 꿈>을, 리인섭은 <망명자의 수기>를 각각 집필하기 시작했다. 1941년 유배에서 풀려난 리인섭은 크즐오르다 직업조합 ‘달리네 보스토크(원동 사람)’ 간부로 일했고 1943년 사망한 홍범도의 분묘수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때 홍범도의 전우인 박성태, 심상원으로부터 홍범도 일대기를 쓸 것을 권유받아 집필에 들어갔고 1952년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으로 이주했다. 안디잔에서 그는 1957년 3월 소련공산당원으로 복권되어 복당할 수 있었다. 이는 1956년 2월 25일 제 20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흐루쇼프 서기장이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해빙의 여파였다. 그의 복권과 복당은 1936년 3월 하바롭스크에서 소련공산당 출당 처분을 받은 후 무려 20년 만에 찾아온 해빙이었다.

1957년 리인섭은 소련공산당 하바롭스크 변강위원회 고문서보관소장 엘리자로바에게 편지를 보내 알렉산드라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수소문했고 리인섭은 엘리자로바로부터 1957년 5월 7일 답장을 받았다.

1927년 하바롭스크의 외국문출판사인 「크니지에젤로」에서 한글로 출판된 「십월혁명 십주년과 소베트 고려민족」 가운데 ‘한인사회당 적위군’ 편에 김수라에 대한 최초의 사진과 함께 약간의 기록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책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 입구에 있는 레닌박물관 혁명전시실에 전시되었으며 동시에 하바롭스크 역사박물관에는 특별히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을 추모하는 개인전시실이 설치되어 그녀의 사진과 소책자, 기타 문건들이 전시되고 있었던 것을 스탈린 개인숭배 당시에 ‘한인사회당’ 당원들을 반혁명분자라고 처리할 시에 개인 전시실까지 없애버렸습니다.

리인섭은 다시 엘리자로바에게 편지를 보냈다. 자신은 현재 알렉산드라 일대기를 집필 중에 있으며 필요하다면 사진 자료를 보내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1957년 7월 1일 엘리자로바는 리인섭에게 알렉산드라 추모비 건립 계획을 포함한 답장을 보낸다. 비록 추모비 건립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 편지 교류는 리인섭의 집필 의욕을 북돋았을 것이다.

리인섭이 알렉산드라 일대기를 집필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계기가 있다. 1959년은 리인섭에게 너무도 뜻깊은 해였다. 그는 그해 카프카즈공화국 예센투키에 살고 있던 적기단 부단장 출신 홍파(본명 이승·1898~1973·선봉 신문기자 출신)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 와 달라”는 편지를 받고 부랴부랴 그를 방문하였다.

홍파는 함남 흥원 태생으로 1917년 조선인 순사가 집집마다 청결조사를 한다며 행패를 부리자, 그를 살해하고 북간도로 망명했다가 1919년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와 소년모험단을 조직, 러시아내전에 참가했으며 1922년 말 군비단 자금을 구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했다가 일경에 체포된 후 탈옥해 러시아에 정착했다. 홍파가 리인섭에게 들려준 얘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을 3월경에 채류랴라는 조선극장 여배우가 예센투키의 한 극장에 와서 공연하는 것을 참관했는데 그녀가 관객들의 질문을 받고 지나간 역사를 하도 잘 맞추길래 나 역시 알렉산드라 김에 대해서도 아는가고 물었더니 다정히 인사하며 말하기를-알렉산드라 김은 내 어머니의 친언니인데 그녀를 아는가-고 물어보더군요. 난 대답하기를-내 전우 리인섭이 알렉산드라와 함께 사업하던 사람-이라고 대답하니 그 배우는 떠나가면서 내 집 주소를 적어가지고 가더니 모스크바에서 편지를 보내왔더군요.

홍파는 리인섭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편지는 ‘모스크바 193 36L 코즈호프스카야 91/20 118호’에 사는 ‘니콜라이 블라디미로프스키 에쿠’가 보낸 것이었다. 에쿠는 알렉산드라의 여동생 마리아 채의 사위였다. 안지잔에 돌아온 리인섭은 에쿠에게 편지를 보낸

뒤 모스크바로 날아가 에쿠를 만난다. 리인섭은 이렇게 회상했다.

에쿠는 기꺼이 모스크바로 와서 자기 각시 오마님 마리아 페트로브나 채를 만나서 그녀가 처녀적에 언니와 함께 혁명 사업을 하던 회상을 들어보라고 청하였다. 나는 4월 27일~5월 3주일 어간을 마리아가 사는 모스크바 스톨네트니코프 골목 20번지 2호에서 유하면서 알렉산드라에 대해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하던 문제를 알게 되었고 마리아도 언니에 대해 알지 못하던 것을 내가 알려주게 되었다. 마리아는 1888년생 늙은 부인으로 자동차에 치어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해 생명은 건졌으나 반신불수는 아닐지언정 심장병으로 귀도 잘 들리지 않아서 담화하기에 매우 힘든 처지였다.

리인섭과 마리아 채와의 인터뷰는 마리아의 모스크바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모스크바에서 마리아와 장장 3주간에 걸쳐 인터뷰를 한 리인섭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렸을 것이다. 칠순의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 침대에 누워 반세기 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마리아의 증언을 듣는 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삶을 완전히 소진한 노인이 눈앞에 누워있다. 우연으로 수놓아지는 게 인생이라지만 멀리 우즈베키스탄에서 날아온 리인섭이 동갑나기 노인 마리아 앞에서 반세기 전의 일을 묻고 대답하는 장면은 좀처럼 상상이 되지 않는다. 삶의 심오한 의미를 음미할 나이였으므로 두 사람은 서로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반세기 전, 시간의 괴물을 어루만졌을 것이다. 그들은 상대방에게서 자신과 닮은 점을 발견하고 빙그레 웃음 지었을까도 모른다. 그건 알렉산드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아무런 대가도 없었다. 오히려 고통과 공포, 그리움과 애잔한 슬픔이 그들의 몫이었을 것이다. 칠순이 넘은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부여잡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해 버렸지만 동시에 아무 것도 변한 것은 없다. 시간은 위대한 광인이므로, 반세기라는 시간마저도 그들에게는 사랑의 생략된 표현법에 불과했으리라.

회한 없는 사랑은 없다. 알렉산드라에 대한 사랑은 오직 그녀의 장렬한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모순의 끝자락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알렉산드라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그녀에 대한 사랑이 그토록 풍성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단 하나의 감정, 단 하나의 얼굴, 단 하나의 그리움으로 함몰되어갔을 것이다.

늙는다는 건 고결하다. 그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네 개의 눈동자 속으로 알렉산드라를 불러냈으리라. 마리아와의 만남은 리인섭에게 알렉산드라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무량한 감개를 느끼게 해주었을 것이다. 만남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마리아의 증언은 리인섭이 쓰려고 한 알렉산드라의 일대기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요구하였다. 증언은 한 걸출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가운데 가장 비범했던 인간 알렉산드라의 삶을 재현하는 일이었다.

인생의 메마른 비밀을 알아버린 리인섭은 우즈베키스탄 안지잔으로 돌아와 마리아의 증언을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에 써놓았던 일대기를 파기하고 새로 쓸 것인가. 그도 그럴 것이 증언은 리인섭이 도저히 짐작도 하지 못했던 생생한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었다.

레프 페트로비치, 와실리 추프로프, 니콜라이 세묘노비치를 비롯해 남가우렁에 살고 있던 애국지사 채광률, 그리고 창고지기 영감 자웨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 반세기전에 살아 움직이던 인물들의 실명을 듣는 순간, 리인섭의 동공은 저절로 벌어졌으리라. 그 실명들은 스무 살 시절 알렉산드라의 주변 인물이었다.

마리아의 한 마디 한 마디는 하마터면 추상(抽象)이 될 뻔한 알렉산드라의 초상(肖像)을 구체적으로 새겨 넣을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었다. 그녀의 증언은 미지의 석고상에 알렉산드라의 형상을 새기는 조각도가 될 수도 있었다. 그건 알렉산드라의 개인적 삶을 구체화시킬 마술의 붓이나 마찬가지였다.

가산을 탕진하고 멘세비키 편에 선 오빠 추프로프, 블라디보스톡 포코로프스크 구역관청에서 일하던 둘째 삼촌 니콜라이 세묘노비치, 블라디보스톡의 청부업자이자 재산가인 사촌 형부 레프 페트로비치 김에 관한 증언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마리아의 증언을 일대기에 녹여냈다면 알렉산드라는 뜨거운 체온을 가진 인간으로 부활했을 것이다.

그러나 리인섭은 마리아의 소중한 증언을 <알렉산드라 일대기>에 담지 않았다. 마리아의 증언은 알렉산드라를 영웅으로 만들려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알렉산드라의 인간적인 고뇌와 상처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는 마리아의 증언이 영웅 알렉산드라의 이미지를 훼손시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리인섭의 우려는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 소련 사회는 사회주의 영웅으로서의 알렉산드라가 필요했을 뿐, 인간 알렉산드라가 필요치 않았다. 이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 당 역사연구소에서는 1957년에서 1961년까지 알렉산드라 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라의 사진과 홍범도 사진을 확대하여 국립민족해방투쟁박물관(지금의 혁명박물관:필자)에 전시하였고 로문으로 내가 처음 쓴 회상기는 조선어로 번역하였는데 이 전기는 귀중한 자료로서 당 역사가들과 지도 일꾼들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다.<sup>4)</sup>

4) 리인섭의 회상.

리인섭은 북한의 혁명박물관에 알렉산드라의 초상화가 걸렸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쓰고 있다.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6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중운동인 천리마 운동이 주창되었다. 전후복구 3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었지만 기간산업이 완전히 복구된 건 아니었다. 소비재 생산은 더욱 낙후했다. 더구나 대외적으로는 소련 등 사회주의권의 원조 감소로 인해 소비재 공급은 더욱 난관에 봉착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인민의 힘밖에 없었다. 인민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추진된 것이 천리마 운동이었다.

알렉산드라의 사진이 평양 혁명박물관에 걸린 건 이때였다. 북한 정권은 알렉산드라를 <영웅 따라 배우기>의 상징적 인물로 선정하였다. 이섭은 1959년 11월 중순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그의 평양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리인섭에 의해 작성된 <알렉산드라 일대기> 소책자는 평양에서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련과 북한은 위대한 사회주의 영웅이 필요했을 뿐, 가족관계에서 혹은 이혼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숨긴 채 소리 없이 울어야 했던 알렉산드라의 인간적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더구나 하바로프스크 변강위원회 고문서보관소장 엘리자로바가 1957년 리인섭에게 보낸 편지에서 약속한 알렉산드라 동상 건립은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리인섭은 집요한 추적 끝에 베일에 싸인 알렉산드라의 생애를 발굴해 많은 분량의 기록들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발굴한 자료들을 미처 다 이용하지 못했다. 알렉산드라를 사회주의 영웅으로 복원하려는 목적의식은 자료의 취사선택에 있어 방해물이 되었다. 그렇기에 리인섭의 알렉산드라 일대기는 씩여지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순을 낳은 셈이다.

리인섭의 <알렉산드라 일대기>가 사회주의 의식에 경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는 냉전 시절의 한복판을 소련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낸 사람이다. 오히려 영웅 만들기라는 편향성이 극동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흩어진 수많은 증언자를 찾아내는 열정을 품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역사적 존재이기에 앞서 철저히 개인적 존재다. 인간은 공공재가 아니라 철저히 사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한 마당에 리인섭이라고 왜 갈등이 없었을까. 그 역시 어느 순간, 회의가 몰려왔을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밀고 갈 것일까. 사적인 부분은 차라리 공백으로 남겨두는 편이 나을 것인가.

리인섭이 알렉산드라의 인간적인 고뇌와 상처를 복원시키지 않은 것은 그의 잘못도, 의도도 아니다. 소련 사회는 패배자를 원하지 않았다. 아니, 패배자를 위한 역사를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나뭇잎을 만졌을 때 한쪽 면의 반질반질한 촉감과 다른 면의 꺼칠꺼칠한 촉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듯, 생생한 실감이 없는 기록은 의미가 반감된다.

열린 창문을 통해 손살같이 빨려 나가는 연기처럼 진실은 망설이지 않고 출구를 찾는다. 안과 밖을 관통하며 지나가는 무엇. 그건 알렉산드라의 삶에 감춰진 부조리극일 것이다. 이 부조리극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향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는 대체 누구인가. 알렉산드라를 가리킨 손가락은 여지없이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삶의 무대에서 온갖 몸짓을 해야 했던 가여운 존재. 그건 알렉산드라의 모습이기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인간이야말로 인간 자신이 목적이다. 하나밖에 없는 목적이다. 그가 무엇인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이리라.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가 소멸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알베르트 카뮈, <시지프 신화>에서)

리인섭은 1962년 원동 해방 40주년을 맞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쓰면서 하바롭스크에 김알렉산드라 기념탑을 세워줄 것을 제의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63년 6월 하바롭스크 변강 문화국으로부터 알렉산드라가 극동인민위원회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하바롭스크 마르크스 거리 22번지 건물 외벽에 알렉산드라의 부조(도스카)가 부착되었다는 통보가 왔다. 리인섭의 오랜 숙원이 미력하나마 성취된 순간이었다.

그 후 30년이 지난 1993년 모스크바에서 유학 중인 필자에게 알렉산드라 관련 문건과 사료를 제공한 이는 고려인 작가 김세일(세르게이 표도로비치 1912~1999)선생이다. 그를 처음 찾아간 날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는 모스크바 세레메치예보 공항 근처의 아파트에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필자의 손엔 러시아 케익 ‘토르트’와 야생 꽃다발이 들려있었다.

김세일은 1968년부터 1969년까지 《레닌기치》에 소설 「홍범도」를 연재한 작가로 국내에서도 1989년 6월 『장편소설 홍범도』(전 3권)라는 제목으로 신학문사에서 출간되었고 같은 해 11월 『역사기록소설 홍범도』(전3권)라는 제목으로 제3문학사에서 다시 출판되었다. 신학문사 판은 김세일이《레닌기치》에 연재했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고 제3문학사 판은 김세일이 수정 증보한 소설로, 헬싱키 대학 언어학과 고송무 교수가 수집해 제공한 사진과 해설이 첨부되어 있었다. 1990년 11월 『역사기록소설 홍범도』의 4, 5권을 속간되었는데 4권 말미엔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있는 홍범도 관계문서철 복사



김세일(1912~1999)

본이 실려 있었고 5권에는 홍범도 일지 필사본이 부록으로 실려 있었다.

『역사기록소설 홍범도』를 탐독하면서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한민족해방운동’을 연구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간 필자는 그러나 김세일 선생과 쉽게 만나지지 않았다. 그는 남한에서 온 낯선 방문자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해주 포시예트 구역 박석골 태생으로 연해주 조선사범대를 졸업한 김세일은 1937년 26세의 나이에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를 경험한다. 일자리가 없어 농장에서 일하던 그는 조선어 교육이 폐지되고 이를 러시아어가 대체하자 조선학교에서 러시아어 교수로 재직하면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고급 당학교 과정을 통신과정으로 수료하고, 공산당에 입당해 《레닌기치》기자가 되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고려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소련 군에 입대해 대일전정에 참전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1945년 해방이후 소 군정과 함께 평양에 진출, 소련군 신문 기자로 10년간 활동하다가 1954년 모스크바로 귀환한 그는 《레닌기치》로 복귀했는데 이때부터 그는 작가 활동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마침 스탈린 사후 나타난 소련 정치체제 변화, 스탈린 우상화 문제에 대한 비판, 스탈린 격하운동 등 스탈린 사후의 정치상황이 급변하면서 강제이주 이후 잊고 지냈던 과거로 눈을 돌린 그는 이와 관련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소설 창작에 나서게 된다.

이런 간단치 않은 이력의 소유자가 일면식도 없는 필자에게 문헌을 제공하게 된 계기는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던 망명 작곡가 정추(러시아명 텐추 Tenchu·1923~2013)가 1993년 봄, 필자에게 써준 소개장 덕분이다. 정추는 일본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1947년 입북, 평양에서 노어대학을 수료한 뒤 소 군정에서 통역으로 활동하며 모스크바 유학을 준비 중이었다. 이때 고려인 2세로 평양에 진출해 참모부 간부로 복무 중이던 김세일과 친교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김세일이 소련으로 귀환한 후에도 이어졌다. 1958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음악원을 졸업한 정추는 북한으로 귀환하지 않고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망명했다.

1971년 김세일은 ‘알렉산드라’를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 〈국제주의자들〉 대본을 완성해 정추에게 작곡을 의뢰했다.



카자흐스탄 망명작곡가 정추(1923~2013)

존경하는 세일 선생

회답이 늦어져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간 병환 중에 있었다니 지금은 완쾌되시었는지. 저도 온 겨울 기침을 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가극 대본 <국제주의자들>은 대단히 만족하게 읽었습니다. 아무튼 큰 수고를 하신 것과 성공적인 시작에 대해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간 몇 번 읽으면 서 느낀 점들을 대략 적어보겠습니다.

1. 1막의 1장은 몇 년대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짐작키를 조선이 일본 통치하에 들어가고 독립운동이 시작된 1910~14년경이겠지요.
2. 마루사가 2막의 교회당 장면에서도 나오는데 앞으로의 가극 발전에서도 등장할 여지가 없겠는지.
3. 이바노브가 전선으로 나가면서 장차 없어지고 마는지, 볼셰비키의 상징으로서 알렉산드라와 어디서나 동반할 수 있겠는지.
4. 2막 2장에서 오신부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조선독립을 위해 나선 수라의 경력, 심정이 결핍된 감이 있음.
5. 제 2막의 시작을 전쟁이 시작되는 1914년의 분위기로부터 하는 것이 더 인상적이지 않겠는가.
6. 제 3장은 국제친선을 위한 인민적 장면으로 하여 도중에 혁명승리(1917년 2월 또는 10월 혁명인가를 선명히 할 것)가 보도되면서 미장센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지. 여기서 포로의 비참성이나 수라와 장교들과의 친근성 등이 그려졌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적 갈등이 이 장면에선 조선노동자들의 심리극이 입만을 통해서 전개되며 준비된 혁명적 군중이 행진해 오는 것을 방관적으로 감수하며 국제적 친선이 각 민족대표자들의 구호들을 통하여 발표되는데서 극적 동기가 펴 약하고 피상적으로 된 감이 있습니다.

이상의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가극의 후반부를 쓰시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기한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접수하면서 세부에 들어가서는 직접 작곡하는 과정에서 밝혀보겠습니다. 더욱 긴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과 후반부 완성을 하루 속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971년 1월 23일 정추

김세일과 정추가 주고받은 편지는 이를 포함해 10여 통에 이른다. 거의 대부분이 가극 창작을 위한 의견 교환이었다. 이런 인연이랄까, 혹은 인과라고나 할까. 그때 김세일과 정추가 주고받으며 터놓은 물길이 뒤늦게 필자에게 흘러들었다는 생각하면 역사에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필자는 리인섭의 자전적 회상기 『망명자의 수기』(반병을 엮음·한울·2013)를 읽으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책 끝에 실린 리인섭의 딸 스베틀라나 인세보브나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기」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휴식의 시간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카프카즈의 휴양소로 가는 기차표를 받았다. 휴양을 마친 후 아버지는 모스크바로 가서 그가 회상록을 쓴 전우의 과부를 만났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녀가 와병 중이라고 말했다. 모스크바로 조선 쌀을 소포로 보내주었다. 얼마 후에 사진이 들어 있는 편지가 왔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서 아버지와 알 수 없는 할머니가 서로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전우의 과부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사진을 탁자 위의 유리 밑에 넣었다. 아버지가 떠나자 어머니는 사진을 꺼내서 반으로 잘라서 위치를 바꾸어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다. 이제 사진 속의 머리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이것을 보자 슬그머니 치워버렸고 이후 아무도 그 사진을 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당연히 저주했다.<sup>5)</sup>

‘전우의 과부’란 다른 아닌 알렉산드라의 여동생 채 마리아이다. 리인섭은 1958년 4월 말 모스크바의 채 마리아를 방문해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알렉산드라에 대한 회상을 녹취했고 그 때 채 마리아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채 마리아는 안디잔으로 돌아온 리인섭에게 편지와 함께 사진을 동봉했다. 리인섭의 부인 박영숙이 사진을 보고 질투를 느낀 나머지 사진을 반으로 잘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위치를 바꿔 탁자의 유리에 끼워놓았던 것이다. 이 장면은 막내딸 이 스베틀라나 인세보브나(1948년생)의 기억에 아버지에 대한 삽화로 남았다.

리인섭은 왜 사진 속 여자를 알렉산드라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부인에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알 수 없다. 어쩌면 리인섭은 채 마리아에게 어떤 연민의 정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건 동병상련의 연민일 것이다. 살아남은 자의 연민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눈빛은 말보다 강하고 연민을 품은 눈빛은 아름답다.

알렉산드라를 향한 리인섭의 연민은 채 마리아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부인 박영숙이 사진에서 본 것은 그 연민의 눈빛이었을 것이다. 리인섭은 알렉산드라의 최후를 이렇게 서술했다.

5) 리인섭, 『망명자의 수기』, 반병을 엮음·한울·2013.

내가 죽은 자리는 내가 잡을 것이다. 조선의 후진들아, 내가 금방 걸어 나온 열세 발자국은 조선 13도이다. 그 발자국마다 우리 당 수령이신 레닌에게서 받은 공산주의의 꽃씨를 심었다. 그 꽃은 모든 풍상, 가혹한 곤란을 돌파하고 만발할 것이다. 당신들은 이 꽃을 두 손에 튼튼히 쥐고 조국을 해방시키고 온 세상에 자랑하여라.<sup>6)</sup>

하지만 이 서술이 사형을 집행한 소총수 율리네크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될 이유는 없다. 아무르강이 흐르고 있는 한, 그 흐름은 언제나 우리 내면의 영원성을 의미한다. 서른셋의 나이에 절명한 알렉산드라의 짧은 생애는 이 지상의 삶을 싸워 이기라는 무언의 드라마이다.

---

6) 리인섭, 『러시아 3대 혁명에 참가한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스탄케비치를 추억하면서』1957~1963년간,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프로스펙트(대로) 20, 스바보디(자유로) 172번지 A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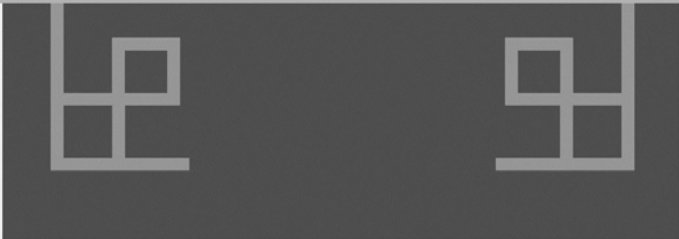


발표문  
Ⅱ

미주지역 여성독립운동가의 항일여정

이 명 화

국가보훈처 연구원





## 미주지역 여성독립운동가의 항일여정

이 명 화 (국가보훈처)

### 1. 머리말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때는 1903년 1월이다. 1905년까지 이주한 7천여 명의 하와이 이민자 중 여성은 637명으로 확인된다. 주로 가족 단위의 이민자들 안에 함께 동행한 부인이나 딸들이었다. 이민자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혼의 청년들은 돈을 벌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꿈을 안고 이민선을 탔다. 하와이의 4개 섬에 산재한 사탕수수 농장주들과 노동계약을 맺고 단기간 고된 노동을 하더라도 돈을 벌고 금의환향할 꿈을 꾸었으나 돈을 모우지도, 결혼을 하지도 못하고 세월이 흘렀다. 하와이에서 노동계약을 마치고 북미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유색인종과 백인의 결혼이 불법화<sup>1)</sup>되었기에 (한인 이민자 남성이) 수가 적은 한인 여성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가능성은 희박했다.

미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과 캘리포니아의 농장지대를 떠나 광산, 철도, 어장 등지의 여러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동부지역으로도 흩어져 여러 곳에 한인사회가 형성되었지만 인종차별과 편견, 언어, 관습의 차이, 그리고 경제적 열악함 등등의 요인으로 제대로 현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인들이 많았다.

한인들은 기독교를 媒介로 하여 교회 중심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교육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다’는 모토로 2세들의 교육에 열의를 다하였으며 국어학교를 운영하여 한인 문화공동체를 이루고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갔다. 이처럼 미주 한인사회가 빠른 시일에 가족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동체를 이루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낯선 이국의 땅으로 이민 길에 나선 부녀자들과 1910년대에 미주로 건너온 사진신부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특히 하와이와 북미로 건너온 사진신부들은 한인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미주의 한인 남성들이 노동으로 경제권을 확보해 나갔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노동뿐만 아니라 가사를 책임졌으며 2세를 출산하여 훌륭한 인재로 키워 이민사회가 굳건한 뿌리를

1) 멕시코 이주 한인들은 주로 원주민 여성들과 혼인이 이루어졌다.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이 원활한 도시로 진출하고 다양한 업종에 종사함으로써 한인 이민사회의 범주를 크게 확대했다. 이렇게 사진신부의 정착으로 미주 한인사회는 자연경제공동체에서 정치문화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사진신부들은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사진신부 여성들의 인생 여정이 온전히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기에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여성들도 적지 않다. 이들 여성들 개개인의 모든 여정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전근대적 한국 땅에서 희망 없이 사는 삶보다는 미지의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어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길을 선택했기에 불행한 삶마저도 감수하였다. 사진신부는 그 자체가 자신의 내면에 강인함과 독립성, 진취성과 주체성을 안고 있는 단어라고 하겠다. 본 발표는 하와이와 북미로 이민 온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미국행을 택하고 가정을 일구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며 민족문화보존 운동과 독립운동에 참여했는지, 또한 2세들이 독립운동을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했는지 그녀들의 독립운동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한다.

## 2. 한인 여성의 미주 이주와 항일운동

1902년 12월 22일, 인천항을 출발한 첫 이주단 121명은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하여 신체 검사를 받았다. 검사에서 19명이 탈락하여 최종 102명만이 미국 상선 ‘젤릭호(Gaelic)’를 타고 이듬해인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하였다.<sup>2)</sup> 첫이민선을 탄 여성은 16명뿐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이래 1905년 7월 하와이 이민이 금지되기까지 총 65척의 배가 전국 각지에서 모집한 이민자들을 실어 날랐다. 그중에 경기도, 평안도, 경상도 출신의 이민

2) 1902년 11월 宮内部 소관 하의 외국 이민 전담기구인 緩民院을 설치한 한국 정부는 인천, 부산, 원산 등 각 시, 군과 항구 등지와 역전이나 교회, 외국공사관, 기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거리에 광고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와이 이민을 모집하였다. 광고에서는 하와이의 온난한 기후, 주 60시간 노동에 대하여 월급 16불, 무료 숙소를 제공하고 의료·신수(薪水, 월급과 식수)가 지급되고 영어를 무료 교수한다는 비교적 좋은 조건이 제시되었으나 이민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없어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 때 인천 내리(內里) 감리교회의 담임목사인 선교사 존스(George Heber Jones)는 유능한 젊은이들을 이민 중계인인 데슬러(David W. Deshler)의 인천의 동서개발회사(East-West Development Co.)에 일자리를 소개하였고 또한 내리교회 교인들에게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할 노동자의 이민을 선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동서개발회사가 중심이 되어 모집한 이민 응모자들은 수한인민원 총재 閔泳煥 명의를 여권(執照)을 발급받아 이민할 수 있었다.

자들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하와이로 이민한 총 7,226명의 이민자 중에 남자가 6,048명이며 어린이가 541명, 여성은 637명이었다.

이중에 남자 이민자들은 대부분 20대와 30대의 독신남자로 하와이(夏倭), 마우이(馬位), 오아이우(歐后), 카우아이(桂倭) 등 4개 섬에 산재한 30여 곳의 사탕수수농장으로 분산되었다. 많게는 5~6백 명, 적게는 몇 십 명씩이 고용되었는데 농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하루 10시간 농장일을 하였다. 미혼 남성들은 군대 사병들의 막사같이 생긴 판자 집에서 한 칸에 4명씩 기거하였고 이부자리는 담요 한 장 뿐인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였다. 작업장에서 한인 남성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번호표를 부여받고 이름이 아닌 번호로 호명되었으며 백인 십장(什長)에게 채찍을 맞아가며 일했다. 남자가 65센트, 여자와 아이들은 50센트 정도의 임금을 받고 8시간 이상 허리도 펴지 못하는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렇게 한 달 평균 25일의 노동 수입은 16달러 정도였다.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이민자 중 술과 도박, 마약에 빠지는 이들이 있자 노동 교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洞會’라는 자치조직을 만들고 동장, 부동장, 서기, 감찰 등의 임원을 뽑아 자녀교육과 축제일의 행사, 병인(病人)의 간호와 그들의 귀국 등을 배려하며 상부상조하고 규칙을 만들어 위반하는 자들을 집단 밖으로 축출하고 풍기가 문란한 자들을 단속하기도 하였다.

하와이 한인 이민사회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결사는 1903년에 조직된 신민회(新民會)이며 신민회 이후에는 많은 정치사회단체들이 출현하였다.<sup>3)</sup> 북미에서는 1903년에 결성된 샌프란시스코 한인친목회가 최초의 결사로 기록되고 있다. 한인친목회에 참여한 여성은 도산 안창호의 처 이해련과 장경의 처(성명 불명) 2명뿐이었다. 샌프란시스코(상항) 한인친목회 회원들은 1905년 도산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 결사한 정치단체 공립협회와 장경 등 인삼장사들이 주도한 대동보국회로 발전하였다. 북미의 공립협회는 북미와 만주, 시베리아지역에 지방총회를 두고 여러 지역에 지회를 두고 미주뿐만 아니라 원동지역에까지 구국운동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신민회가 결성된 이래 20여개에 달하는 한인단체들이 출현하였고 이들 단체들은 1907년 9월 2일 ‘조국 국권 광복과 재류 동포의 안녕보장, 교육장려, 민족주

3) 1903년 8월 7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홍승하(洪承夏)·윤병구(尹柄球)·임치정·송현주 등의 발기로 조직되었다. 한인간에 구국정신을 고취하여 일제의 조국 침략행위를 격퇴하는 데 신민회의 설립 목적이 있었고, 그 실천 강령으로 동족단결, 민지계발, 국정쇄신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주한인들의 전반적인 정치의식이 근대 민주정치 사조에 아직 익숙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민’ ‘국정쇄신’ 등의 용어가 일반 한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1904년 4월 20일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 그 외에도 공진회, 일심회, 친목회 등의 정치적 사회단체를 조직하였다.

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 한인합성협회(韓人合成協會)로 통합하였다. 북미의 공립협회와 하와이의 한인합성협회는 1909년에 국민회로 통합하였고, 1910년에는 국민회와 대동보국회가 통합하여 대한인국민회로 발전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명실상부한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총본부가 되어 재미한인의 무형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였다.<sup>4)</sup>

대한인국민회는 민주적 시스템을 갖춘 선진적인 조직 운영으로 교민들에게 소중한 민주주의를 훈련케 하고 조직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민족의 역량을 키워나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전동포들을 '조국독립'이라는 공동 목표 안으로 결집시킨 점이다. 여기에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대한인국민회 조직 안에서 모든 여성들은 국민이라는 지위를 가질 수 있었고 여성은 조국 독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하늘의 절반'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와이 이민 여성 중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로는 황마리아와 문도라(문포라)가 있다. 그녀들의 인생의 여정은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황마리아는 하와이 최초의 여성조직인 대한부인회를 조직하고 여성계를 이끈 지도자이다. 황마리아의 맏딸은 대한여자애국단 초대 단장인 강혜원(일명 김혜원)<sup>5)</sup>이고 큰아들은 한인 최초의 법학박사 강영승, 그리고 며느리 박원신(일명 강원신) 역시 대한여자애국단 단장을 지낸 여성 지도자이다. 평양에서 출생한 황마리아의 남편(康翊普)은 세무주사 강익진이다. 그는 가산을 탕진하며 기생과 놀아났고 첩을 여러 명 둔 난봉꾼이었다. 이대로라면 가정의 파탄은 물론이고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황마리아는 남편과 시댁 몰래 2남 1녀 자녀와 며느리 박원신을 대동하고 이민선에 올랐다. 당시 큰아들 강영승은 17세이고 둘째아들 강영옥은 7세의 어린 나이였다. 황마리아는 큰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이를 속여서 아들의 가족으로 이민선을 탔다. 이렇게 1905년 5월 13일 황마리아(당시 43세)가족은 낯선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하여<sup>6)</sup>

4) 1909년 북미 공립협회와 한인합성협회는 합동하여 국민회(國民會)로 발전하였다. 한편 1908년에 일어난 명운·장인환 의사의 '스티븐스 처단사건'을 계기로 하여 국민회와 대동보국회는 통합하여 1910년 대한인국민회로 발전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대 재미한인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자처하며 멸망해버린 조국을 대신해 한인 최초의 국민국가에 바탕을 둔 임시정부의 건설을 처음으로 제창하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산하에 북미·하와이·시베리아·만주 등 4개 처의 지방총회와 이들 지방총회 산하에 수많은 지방회를 두었고 멕시코·쿠바 등지의 지방회까지 포함해 한 때 총 116개 처에 지방회를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5) 강혜원은 1919년 3월 2일 캘리포니아주 다뉴바에서 올케 강원신 등과 "신한부인회"를 조직하였고, 5월 18일 "한인부인회"와 "신한부인회"의 합동을 추진하고 8월 2일 부인회 합동결의안을 통과시켜 大韓女子愛國團을 결성하였다. 대한여자애국단 총단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한편 흥사단과 대한인국민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6) 17세의 소년 강영승(본명 강지승)군이 하와이에 닿은 것은 1905년 5월 13일 어머니 황마리아 여사와 누님 강혜원(당시 20세), 부인 강원신(당시 19세), 막내 동생 강영옥군(7세)과 함께 평양에서 노동이민자로 자원. 제물포를 거쳐 하와이에 도착한 것이다.....(민병용, 『美州移民 100年 初期人脈을 켜다』, 2003, 43~44,

농장일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황마리아 집안의 여성들은 아들 강영승을 북미로 보내 교육시키고 농장에서 황마리아는 딸과 며느리와 함께 삶을 이어나가며 아들을 뒷바라지했다. 첫 이민이 시작된 후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 종일 노동하고 집에서 돌아와 음식을 만들고 빨래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여성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농장의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1913년 4월 19일에 하와이 최초의 한인 여성단체인 호놀룰루 대한인부인회(Korean Women's Association)를 조직하였다. 대한인부인회는 자녀의 국어교육을 장려하고 가정 일용 사물에서 일화를 배척하며, 교회와 사회단체를 후원과 재난 동포 구제에 노력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회장은 황마리아이다. 황마리아의 딸과 며느리도 북미로 건너가 한인 여성 지도자가 되었다. 황마리아 자신은 하와이에 있으면서 3.1운동 이후 대한부인구제회를 지도하였으며 일생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다 1937년에 사망하였다.<sup>7)</sup> 황마리아의 일생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물론 많은 여성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 문도라는 세례명 ‘도라’로 알려진 여성이다. 문도라의 얘기는 선교사 아더노블의 부인인 매티 월 월콕스 노블의 회상기에서「문도라의 이야기」에 실려있다. <sup>8)</sup> 문도라의 본명은 김도라이나 남편의 성을 취하여 문도라라 불렸다. 문도라는 평양에서 노블 선교사의 전도부인으로 일하면서 종교적인 곤경에 처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sup>9)</sup> 또한 문도라의 남편은 첩을 두었고 그녀에게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박질렀다. 그녀는 남편이 회개하기를 기도했으나 이혼 당하였다.<sup>10)</sup> 남편이 딸을 데려가려 했으나 문도

47~49면). 이민하고 2개월 후에 姜明化(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강영소씨의 아버지)의 초빙을 받아서 예와 농장에 정착하였다.

7) 고 황마리아 여사를 추도 - 김창만 -

(상략) 그 어른은 지금에 말하자면 구식 가정의 출신이요. 또 여자인 것만치 무슨 고명한 학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 어른의 평소의 생활 역사를 들으면 그는 가히 우리민족 사회에 무명 봉사자였었다. 그렇게 힘든 세탁업으로 그날그날의 생활을 하여가면서 자녀 교육에 열심 하였고 것처럼 손끝에 피를 흘리며 얻은 돈을 사회를 위하여서는 많지 못하나마 아낀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어른은 30여 년을 하루같이 교회나 사회를 위하여 어느 집회에든지 껄적한 적이 없느니만치 그 능력이 있는 한도까지는 그 일에 동력하기를 사양한 때가 없었으므로 그 어른의 성력에는 비록 목석이라도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하략)

8) 매티 월콕스 노블 저·손현선 역,『매티 노블의 조선회상』, 좋은 씨앗, 2010, 210 ~ 215면.

9) 문도라의 시아버지가 시골 여행 도중 병에 걸리자 온가족이 모여 무당을 부르고 장구치며 굿을 하라고 재촉하였다. 친정어머니도 그녀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였다. 온식구들이 그녀가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10) 어느날 평양의 매티 노블 집에서 여성성경반 수업을 마치고 마당에 들어섰을 때, 한 여성이 다가와 문도라의 긴고름이 달린 저고리의 한쪽 귀퉁이를 잘랐고 그것을 집에 있는 남편에게 갖다 주었다고 한다. 이같은 행위는 당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할 때 거쳐야 하는 통상적인 관례였다고 한다. 그렇게 문도라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한다.(매티 월콕스 노블 저·손현선 역,『매티 노블의 조선회상』, 좋은 씨앗, 2010,

라는 딸 문월라(일명 정월라)를 데리고 1903년 하와이 이민선을 탔다. 이후 문도라는 하와이 대한인부인회 회계, 대한부인구제회 위원,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 총지부 중앙집행위원과 사교부장을 역임한 하와이 기독교계와 독립운동계의 대표적인 여성지도자가 되었고 딸 월라도 어머니와 함께 하와이 독립운동계의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 3. 사진신부의 독립운동

한인사회가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족을 기반으로 한 정치문화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큰 계기는 여성들이 인종차별이라는 큰 문제 안에서 독립운동을 수행하는 데 남녀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녀 차별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사진 신부로 미주로 온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름없이 동등하게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남성이 압도적 수를 차지하는 이민사회에서 여성은 가족을 이루는 소중한 일원이었다. 백인여성과의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중국인이나 일본인 커뮤니티와의 교류도 활발하지 않았기에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의 수는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사회문제가 일어났다. 이에 노동생산성을 안정화시키려는 복안 중에 사진신부의 초빙은 당시 최선의 대책이었다. 동양인배척법의 시행으로 인해 더 이상의 미주 이민은 금지되었으나 고국의 부인을 초빙한 것은 허용되었는데 이를 이용해 사진신부의 초빙이 번성하였다.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에 미주의 한인들을 자국의 ‘보호민’으로 취급했으며 1910년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이후에는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 선언하였다. 미주로 와서 홀아비가 되었거나 미혼인 남성들 중 사진신부를 원하는 남성은 자신의 사진을 중매인에게 보내 여성이 사진신부를 지원할 뜻을 가지면 여성의 사진을 남자에게 보여주었다. 여성의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면 신부에게 초청장과 배 샴을 보내고 미주에 도착하면 결혼식을 올려 부부의 연을 맺었다. 사진신부로 초빙된 여성들은 대한제국이 아닌 일본 여권을 받아 하와이로 입국하였다.<sup>11)</sup>

1910년 11월부터 1924년 10월까지 사진결혼으로 미주에 온 여성들은 영남출신의 신부 951명과 상하이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입국한 북한 출신의 신부 115명이 있었다. 1910년

215면.

11) 1923년 7월 21일자로 일본 척식사무국에서 보고한 「미령포와에 재류하는 조선인실황」(1922년 12월 현재)에 의하면 1918년에 87명, 1919년에 37명, 1920년 29명, 1921년에 44명으로, 4년간 197명의 사진신부가 하와이로 건너왔다. 이들 사진신부 197명의 원적을 보면 경상남도가 148명으로 타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미령포와에 재류하는 조선인실황」에 의하면, 경상북도 9명, 전라남도 1명, 충청남도 1명, 경기도 19명, 강원도 8명, 황해도 2명, 평안북도 6명, 함경남도 3명

12월 2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최초의 사진신부 최사라 이래로 미주의 한인 부녀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여성들 대부분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교회를 통해 약간의 교육을 받았으며 남자가 보내준 사진과 2백 달러의 여행경비를 갖고 용감하게 이민선을 탔다. 한국인 사진신부 제1호 최사라(23세)는 1910년 12월 2일 호놀룰루항에 도착하여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 총회장이던 38세의 노총각 이내수(李來洙)와 가정을 이루었다.

고국에서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여학교를 나온 여성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에 대한 동경을 품었고 미국에 가면 문명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공부도 더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사진신부를 지원하였다. 이민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문맹이거나 초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남자들이기에 사진신부의 학력이 높았고 이 점에서 미주 한인사회는 변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사진으로만 본 신랑감을 찾아 홀로 미주로 건너온 여성들의 삶은 다양하게 펼쳐졌다. 중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나이를 속인 노인을 신랑으로 맞이하기도 했으며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였다. 사실 낯선 땅에 가서 처음 보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사진신부를 지원한 것 자체가 그녀들이 일반 전통적이며 봉건적인 의식을 가진 여성과 달리 독립적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성향의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주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로 인하여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자질과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평판을 불식시킬 수 있었고 또한 여성은 내성적이고 의존적이고 연약·유순하고 순종적이며 소극·수동적이라는 등등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진신부가 되기를 자처하여 남편감을 찾아 고향을 떠나 먼 이국 땅 하와이로 온 사진신부는 결혼과 동시에 꿈에서 깨어날 틈도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든 수밖에 없었다. 사탕수수밭 농장일은 물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잡역부나 노동자들의 옷을 세탁하며 돈을 벌었다. 자녀들이 태어나자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도 여성의 몫이었다.

1905~1925년 사이 하와이 한인사회는 20년간에 각 지방에 건립된 교회마다 교회 안에 국어학교를 설립하였다. 1907년 4월 5일에 창립된 하와이 힐로 한인소학교 이후로는 많은 국어학교가 교회 부속으로 설립되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사진신부들이 교사가 되어 우리말과 한글을 가르쳤다.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나라가 왜 독립을 해야 하는지 가르쳤으며 미래를 준비할 책임감을 일깨워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미주 여성들은 국어학교에서 한글과 한국의 역사문화를 가르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한인들에게 민족적 자존감과 독립심을 심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적 에너지원이 되어주었다.

미주의 여성들은 남성들과도 대등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심지어는 독립운동을 전담하는 남성을 대리하여 가족의 가장이 되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여성들도 많았다. 여성들은

손가락에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일을 하였고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 남편을 설득하여 농장을 떠나 다양한 취업 기회와 높은 임금을 찾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진출하였다. ‘교육이 바로 생명’이라는 믿음과 높은 교육열로 미주의 2세대들은 공립학교 과정을 마치면 대다수가 대학으로 진학하였다. 이렇게 도시로 나온 미주의 2세대들은 미국인 상점에 고용인이 되기도 했지만 점차 점포를 소유하고 자영업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미주 한인사회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갔다.

#### 4. 3.1운동 이후 미주 여성의 독립운동

3·1만세운동 때에 여성들은 맨몸으로 거리로 뛰쳐나와 일본 헌병의 총칼 앞에 의연히 만세를 부르다 무자비하게 검거 당하였고 옥중에서도 당당히 일제에 항거하였다. 3·1운동이 지방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여성들은 앞장서서 담대한 용기를 보여 주었고 국민으로서의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였다. 3·1운동 소식이 미주 한인사회에 전달되고 여성들의 눈부신 활약이 전해지자 미주의 한인여성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미주의 이민사회가 형성된 이래 여성들은 동포사회 안에서의 부인들의 친목과 종교차원의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3·1운동은 미주여성들에게 큰 각성을 일으켰다.

3·1운동 당시 재미한인의 수는 약 8천명 정도였다. 이들 중 농업에 종사하는 농장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은 30-35달러 정도로, 근근이 벌어서 생활하는 정도였고 농장에서 일하는 부인들은 시간당 15센트씩의 품삯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박봉에도 이를 절용하며 여성들은 매월 3달러씩의 애국금을 조국의 광복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다. 미주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자기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이 많아 독립의연금을 낼 때에도 김부인, 이부인, 송씨부인....등등 자신의 이름 없이 의연하였다. 이러한 자발적 의연활동은 비록 이름은 없지만 그녀들에게도 국민의식이 있었음을 말 수 있다.

3·1운동을 분수령으로 하여 여성들의 의식도 변화되어 갔다. 1.5세대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은 기존의 미주 부인단체들을 합하여 조국 독립운동 후원을 목적으로 한 통일 단체를 결성하였으니 그것은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와 북미의 ‘대한애자애국단’이다.

먼저 하와이 대한인부인회는 황미리아가 조직한 이래 국어교육 장려, 일본용품 배척, 교회와 사회단체 후원, 재난동포의 구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직접적인 독립운동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3·1운동의 소식이 전해지자 각 지방의 부녀 대표자 41명이

1919년 3월 15일 호놀룰루에서 제1차 공동대회를 개최하여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먼저 3.1운동으로 사망한 충의열사와 민족대표 33인의 유족을 구제하기로 결의하고 아울러 독립운동을 후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어 3월 29일에 제2차 공동대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독립운동 여성단체인 대한부인구제회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즉 대한부인구제회는 “① 조국독립운동 후원 목적으로 하와이 각 지방의 한국 부녀를 규합하여 설립하고, 부녀사회의 운동역량을 여기에 집중한다. ② 독립운동에 대하여 부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봉사하되 독립후원금 모집에 착수할 것이며, 항일군사운동이 있을 경우 출정군인 구호사업의 준비로 적십자대 임무를 연습하며, 재난동포 구제에 노력한다. ③ 독립운동과 외교사업 선전에 대한 후원방침은 대한민국민회 지도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다”는 것을 결의하였다. 이리하여 손마리아·황마리아·김유실·박정금·안정송<sup>12)</sup> 등은 4월 1일 호놀룰루에서 대한부인구제회를 조직하였다. 구제사업으로 3.1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다친 애국지사 가족에게 1,500달러의 구제금을 송금하고 국내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청년회와 동아일보사·조선일보사 등의 언론기관을 통해 구제금을 보냈다. 이러한 사업 전개를 위해 대한부인구제회는 매년 연례금으로 2달러 50센트씩 걷어서 경상비에 활용하였고, 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특연금을 모집하였다. 조국 독립운동을 후원하는데 여성들의 우선 사업으로 독립 후원금 모집에 착수할 것과 항일군사운동 즉, 독립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출정 군인들의 적십자대 임무를 준비하고 재난 동포 구제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부인구제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외교선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연금을 모금하였고 만주의 대한군정서와 대한독립군총사령부에도 독립군을 위한 구호금을 모금하여 송금하였다. 1940년 重慶에서 한국광복군이 조직되었을 때도 광복군 편성 후원금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한부인구제회 회원들이 애국사업에 바친 재정은 총 20만 달러를 넘었다.

대한부인구제회에서 활약한 안정송의 본명은 이정송이다. 남편 안원규의 성을 따른 것이다.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安貞松의 이력서’에 의하면 그녀는 1895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하였다. 1910년 평양감리교회 소학교와 1913년 서울 이화학당을 졸업하였고, 1916~1918년 일본의 요코하마여자신학교를 수학하고 돌아와 이화학당의 교사 등을 거쳐 1926년에 하와이로 건너왔다. 이후 호놀룰루 한인 학교 교사를 지내며 하와이 대한부인구제

12) 그 외에 참석한 여성 명단이다. 김복남·손경신·김보배·최사용(최상용 ?)·백인숙·안득은·김복순·김정환·정혜련·김루시·김아주리·임마리아·김살로미·정마타·손마타·김해나·심영신·김차순·곽명숙·박금우·김엘시·김으로스·홍수사나·한에스터·이영애·최자신·김숙안·박엘시·이마지·김순화·김교선·윤광희·조병선·유정순·이월선·엄수산.

회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였다.<sup>13)</sup> 남편과 함께 1930년 1월 30일 하와이 한인협회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임시정부를 봉대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다.<sup>14)</sup> 1930년 산업 시찰을 목적으로 정월라와 함께 고국을 방문하기도 했으며<sup>15)</sup> 대한부인구제회 학무를 역임하였고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출범하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유일한 여성위원으로 피선되어<sup>16)</sup> 한미승전후원금 모집 활동에 적극 나섰다. 한편 안정송은 여성 실업인 이기도 했다. 한국인이란 점심, 저녁 하루 세끼를 간장 없이 요리 할 수 없었기에 일본제품의 양조간장인 왜간장 소비가 만연하였는데 미주 여성계가 꾸준히 전개해 온 일본 물품 배척운동의 일환으로 왜간장을 대신하여 우리 기술과 자본, 우리 소유의 간장제조의 제장회사를 창립하여 동포사회에 공급해 그 자금 이익을 얻어 독립자금을 확보하였다.<sup>17)</sup> 후일 이 간장회사는 중국인 자본을 끌어들여 중한제장회사(中韓製醬會社)로 발전하였다.

1942년 2월 22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로부터 독립금 예약을 수봉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안정송은 미·한 전시공채 위원으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호놀룰루 KGU 라디오 동양전신방송에서 독립혈전을 주창하며 미주 한인들이 독립금을 내어 독립운동에 일조할 것을 호소하였다.<sup>18)</sup> 이 날 독립금 예약을 수봉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금예약 수봉위원회를 조직하여 구역을 나누어 7,000원 가량의 독립금예약을 받았다. 여자들은 근 500원을 예약하고 현금으로 분납하였다. 그리고 정월라와 함께 미국 적십자회 회원 100명가량을 모집하여 하와이 적십자회 지부로 보내 미국 정부의 전시 사업에 협조하였다. 미국 적십자회 한인부를 두고 이매리, 권희경(변명 이희경, 권도인의 부인)과 적십자회 재정모금에 나섰다.<sup>19)</sup> 미국 전시공채 모집에도 적극 가담하여 공채 구매 및 판매를 권하는 응모 봉사에 자원하였다.<sup>20)</sup> 이렇게 안정송은 조국 독립을 위해 재미한인이 할 수 있는 직분이 무엇인가를 일깨우

13) 해방후에는 1951~1956년 국민회의 『국민보』에서 사회부 기자, 1968년 감리교 총회에 평신도 대표, 1974~1983년 하와이 한국인 이민역사 수집 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4) 2월 6일에 발기인 29인이 안정송·안원규 부부 집에서 만찬 모임을 갖었다. (『新韓民報』 1930. 3. 13).

15) 入京한 하와이 동포 여성 - 20년 만에 그리운 故土 밝은 安氏의 부인 李 여사 (『朝鮮中央日報』 1935. 5. 21)

16) 『國民報-太平洋週報』 1944. 1. 26

17) 제장회사 임시 주무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안원규, 안정송 부부와 정원명, 정인수, 이호직, 정운서, 김경운, 이창준, 장봉희, 배인추, 류한홍, 전영택, 서정일, 강영소 등이다. (『新韓民報』 1921.10.13).

18) “.....지금 형편으로 불진대 국내·국의 한인들이 상응하여 민족자결주의로 독립혈전을 강화하는데, 미·포·묵·쿠바 한족의 할 직무가 무엇일까. 우리의 마땅히 이행할 직분은 곧 독립금을 내서 광복운동의 경비를 보충함이다. 조선독립을 위하여 독립금을 누가 내는가. 조선 사람밖에는 다른 민족이 없도다.” (『國民報-太平洋週報』 1942. 3. 4)

19) 『國民報-太平洋週報』 1943. 4. 14.

고 특히 주도권 다툼으로 남자사회가 분열되고 여러 단체들이 우후죽순 지세로 일어나는 사태를 비판하고 독립운동 단체들을 뒷바라지 한 여성들을 “마치 깊은 산곡에서 뭍쓸 풍우를 겪으면서 자라는 한 떨기 백합화처럼 태연하게 되어 있어, 그 임무를 다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때가 험하고 일이 많은 이때에 옛 일만을 추억하고 있을 수 없고 시대 요구에 응하여 오늘의 급박한 일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 부인들은 총동원하여 한 뭉치의 뜨거운 운동을 일으키자”며 남성들에 의해 주도된 애국단체가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주의, 주장만을 옳다며 갑론을박에 빠져 대일항전의 힘을 분산시키는 모순된 실태를 비판하고「같이 합시다」를 외치었다. 재미한인 단체들이 통일을 이루어 임시정부를 최고기관으로 하고 실제적인 군무공작에 후원할 것과 세계를 향한 외교에 힘을 총동원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sup>21)</sup>

북미에서 활약한 사진신부로 주목할만한 여성은 양주은의 부인 양제현이다. 본명 이제현이며 진명여자 고등보통학교 제1회 졸업생인 이제현은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은 양주은이 결혼의향이 있음을 알려오자 상해로 가서 중국인 행세를 하여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1913년 8월 이대위목사의 주례로 34세의 노총각 양주은과 19세의 이제현은 결혼하였다. 양주은과 결혼한 이후 이제현은 양부인 혹은 양제현으로 불리었다. 양제현은 양주은이 벼농사를 위해 새크라멘토로 이사하자 1917년, 1919년 새크라멘토 한인부인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922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앵클 샘 레스토랑(Uncle Sam's Restaurant)이라는 서양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식당은 번성하였다. 양제현은 1929~1930년 대한여자에국단 총단장, 1925년, 1928년, 1933~1935년, 1938년, 1941~1942년, 1944년 대한여자에국단 샌프란시스코 지부 단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1931 이후 1942년까지 대한인국민회 샌프란시스코 지방회 救濟員·財務·執行委員·學務委員·教育委員·實業委員 등을 역임하고 1930년대 샌프란시스코 국어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며 샌프란시스코의 한인들과 유학생들의 대모가 되었다. 그 외에 윤응호와 사진결혼한 김도연, 방사겸과 사진결혼한 이살로매(방살로매로 알려졌다), 임지성과 사진 결혼한 백인명 등 많은 사진신부들의 미주의 한인 역사를 변화시켰다.<sup>22)</sup>

한편 북미에서도 1910년대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여성 단체들이 3.1운동 이후 조국 독립 운동에 보조를 함께 하고자 통일을 시작하였다. 미주의 경우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로스엔젤레스와 다뉴바

20) 『國民報-太平洋週報』1944. 1. 19.

21) 『國民報』1944. 2. 23.

22) 閔丙用, 『美洲移民 100年 初期人脈을 켜다』, 한국일보사 출판국, 1986.

지역의 부인회 여성들에게 부인회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간곡히 권유하였다.<sup>23)</sup> 3.1운동 소식이 전달된 이후에 L.A.부인애친회(1919. 3.28)와 멕시코의 부인애국동맹단(1919. 4.23) 등이 새로 결성되었다. 새클라멘토 한인부인회와 다뉴바의 신한부인회, LA 한인부인회는 1919년 5월 18일에 연합한다는 통고문<sup>24)</sup>을 발표해 처음으로 합동을 이룬 부인애국단이 발기되었다. 광복운동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가할 것을 결의한 여성들은 8월 2일 합동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합동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8월 5일 다뉴바 한인장로교회에서 역사적인 대한여자애국단 창단식이 거행되었다.<sup>25)</sup>

조국의 여학생이 3.1독립시위대의 선봉에 서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다가 일본헌병의 군도로 팔이 잘렸다는 소식은 미주여성들의 애국심을 크게 자극하였다. 미주 여성들은 프랑스 혁명 당시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롤랑부인(Madame Roland)<sup>26)</sup>의 애국심을 닮고자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일선에서 싸우기를 결심하고 독립운동 대열에 뛰어들었다.<sup>27)</sup> 이어 샌프란시스코 한국부인회와 로스앤젤레스의 부인친애회 양 단체는 1919년 8월 5일 다뉴바 한인장로교회에서 합동발기대회를 개최하고 합동결의안을 통과시

23) 금년 4월에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 씨가 각 지방에 순행하실 때에 우리 여자들을 대하여 권유하신 바, 해외에 거류하는 대한 여자는 대동단결을 이루어 우리 내지에서 일어나는 여자 독립당과 같이 정신상으로나 물질상으로나 독립당을 응원하는 것이 정의에 마땅하다 하신 바 (중략) (『新韓民報』1919. 8. 7)

24) “부녀 동포여, 국내 동포는 독립선언 이래로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일어나니 앞선 자 쓰러지면 뒤에 있던 자 계속하여 생명을 바치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려는가. 국내에서 나오는 부녀 운동가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만세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왜적에게 맞아서 국기를 들고 꺼꾸러지는 것이 보이는 듯하여 비분강개한 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한줄기 눈물만으로 일을 방관할 수 없는 즉, 우리도 조국 독립운동에 한 몫을 하기로 하자. 이제 미주 안에 몇 개의 부인회가 있으니 그들이 합하지 않으면 힘이 약할지니 반드시 합동하여 하나의 통일단체를 만들고 그로써 조국광복에 대한 우리 부녀들의 운동을 강화하자.” (金元容, 『在美韓人五十年史』, 캘리포니아, 1959, 226면.)

25) 매년 8월 5일 창립기념 날은 여성들의 단결을 돈독히 하는 장이 되었다.

26) 동양에서 롤랑 부인의 전기는 1886년 일본에서 처음 출간되었고 1902년 중국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한국에서는 1907년 매일신보에「라란부인전」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으며 이듬해 단행본으로 출간된 바 있다.

27) “.....늬가 감히 한국여자들을 일함이 없다 말하며 늬가 감히 한국여자들은 애국심이 없다 말하리오. 우리 아낙네들이 큰 대문 밖에 나온 지 겨우 수십 년에 이와 같은 발전된 것은 실로 뜻밖이라. 아무려나 그와 같은 애국여자가 앞에도 많이 오리니 우리는 이 여중호걸들을 위하여 대한독립만세를 같이 한 목소리로 부릅시다. 해외에 나온 우리 자매들은 자유를 위하여 두 팔이 끊어진 저 누이님의 뒤를 이어 일하기 위하여 밥 지을 때에 쌀 한 줌 씹을 덜 익히며 반찬 살 때에 동전 한 푼씩 경제하여 재정을 모아서 독립성공에 극력 찬조하기로 결심한 자 많다하는데 아직까지 이와 같은 좋은 일에 참 쉽지 않은 부인들이 있거든 대뜸대뜸 하지 말고 속속히 자원하고 나서야 대한독립의 어머니나 누이님 되기가 부끄럽지 않으리라 합니다. 근일에 몇몇 자매들이 주머니를 털어 내어 정성과 뜻을 다하는 자 많은 가운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자유생활을 하여 가며 공부하는 여학생들이 독립을 위하여 있는 돈을 대한민국민회로 보내며 일변 백인사회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형을 글로나 말로 설명하여 알리움이니 우리는 이 부인애국단이 창자 우리 독립의 어머니가 될 줄 믿거니와 또한 그들이 각기 스스로 독립의 어머니 되기로 결심하기를 바라노라.”

쳤다. 그리고 대한여자애국단을 창립하였다.<sup>28)</sup> 창립된 대한여자애국단은 초대 총부단장에는 황마리아의 딸 김혜원(康蕙園, 미국명 Sarah Kim)이 선출되었다. 대한여자애국단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인준을 얻어 독립운동과 대한인국민회를 적극 후원하며 독립의연금 등을 비롯한 각종 모금운동에 참여하였고 역대 총부단장을 중심으로 다방면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다.<sup>29)</sup> 그 외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구미위원부 등에 독립금을 지원하고 자신이 속한 독립운동 단체에 의연금을, 그 외에 신한민보나 국민보 등 미주 언론사에 기부금을 내었다.

미주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의 요람지이며 도포들의 사교장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교회는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난 후 독립의연금, 21예금(二十一例金, 통상 수입의 20/1을 납부케 하는 의무금), 애국금, 공채금, 인구세 등등의 의연금을 모금하는 일도 여성들이 모금원으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남편의 명의로는 별도로 자신의 개인 이름으로 독립금을 의연하였다. 앞서도 보았지만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가계 상황에서도 여성들은 교회와 국어학교 운영을 지원했으며 대한인국민회에 인두세 및 각종 명목의 독립운동 자금<sup>30)</sup>을 내었다. 한편 고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재난이 있을 때마다 여성들은 외면하지 않고 YMCA와 동아일보사·조선일보사를 통해 구제금을 송금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미주 여성들의 독립금 지원은 항일민족운동 전선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웠으나 일본 공권력이 미칠 수 없는 미국 땅에서만 만주·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독립투쟁을 하는 항일단체와 항일운동가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국민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대한여자애국단의 활동목표는 “① 조국 독립운동에 관여하는 대한인국민회와 동심협력함 ②가정의 일용 사물을 절약하여 독립운동 후원금으로 辨備하며 국내 동포 구제 사업에 노력함 ③가정에서 日貨 배척을 단행함”에 두었다. 특히 군자금을 모금,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28) 다뉴바 신한부인회 대표 한성선은기·이낸사·이성애·임성실, 로스엔젤레스 부인친애회 대표 임메블박순 애안혜련·김혜원, 새크라멘토 한국부인회 대표 양제현·권영복·김자혜, 샌프란시스코 한국부인회 대표 전그레이스 박애나 최유실·백낙희, 윌로우스지방 부인회 대표 임광명·윤으로스 등 각 지방 부인회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29) 역대 대한여자애국단 총부 총단장을 역임한 여성은 다음과 같다.  
1919~20 김혜원(김석원 부인, 본명 강혜원, 황마리아 딸), 1921~23 한성선(한시대 어머니), 1924~25 강원신(강영승 부인, 본명 박원신, 황마리아 며느리, 강혜원 올케), 1926~28 황보석(황사용 부인, 본명 차보석, 차리석의 누이동생, 1929 ~30 양제현(본명 이제현, 양주는 부인), 1931 ~ 1932 최우실(최정익 부인), 1933~ 37 박경신(박재형 부인 본명 차경신), 1939 ~40 김혜원(김석원 부인 본명 강혜원), 1942 ~ 44임메블(백일규와 김낙희 부부의 딸)

30) 1940년대에는 애국금, 의무금, 혈성금, 독립금, 인구세, 3.1금, 한인공채, 중국 구제금, 군사금 등의 의연금을 내었다.

를 경유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축으로 하여 상해 대한여자애국단과 한국 내의 대한민국여자애국단, 그리고 미주의 대한여자애국단은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조직으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의무이자 역할인 독립의연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대한애국부인회 회원들은 상해 대한여자애국단과 연통하고 국내에서 비밀결사로 결성된 대한적십자회와 여자애국단과도 조직적 연대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임시정부의 연통제·교통국 연락망이 발각되어 조직망이 붕괴되면서 통일운동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1920년대에 국내외의 독립운동계는 일제의 식민지동화정책에 저항하여 민족 문화를 보존하고 민족혼을 지키면서 민족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실력양성운동이 대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국외 항일 투쟁자에게도 영향을 주어 대한여자애국단에서도 1924년 8월에 '본단의 목적은 대한 여자를 단결하고 문화 준칙과 도덕 원리에 기인하여 개인으로부터 가정에, 가정으로부터 사회로의 개량을 힘쓰며, 대한 독립의 기초적 역량을 준비함과 힘쓰며 있음'으로 장정을 수정하여 실제적인 힘을 기르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미주의 한인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한국어와 한국역사,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가르쳐 한국인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고자 하였다. 여성들은 생활의 곤궁함 속에서도 2세들에게는 미국사회로의 빠른 적응에 앞서 한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 독립항쟁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국어는 그 나라의 정신이며 영혼이니 국어가 있고 국권이 없으면 그 국권을 회복할 수 있으며 국권이 있고 국어가 없으면 그 국권을 보존하기 어려운 법”임을 가르치고 하와이와 북미를 비롯해 멕시코 등지까지, 한인사회가 형성된 곳에는 그 어디에서든지 국어학교를 설립해 교육의 연금을 모금하고 교사가 되어 2세들의 국어교육을 전담하였다. 한편 매해 3·1독립기념일과 경술국치기념일 등 한인들의 국경일 또는 기념일 행사가 있는 날에 여성들은 행사 주관을 물론 다양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망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민족문화 보존운동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고자 한 노력 또한 여성들의 몫이었으며 힘이었다.

1937년 3월 대한인국민회가 로스앤젤레스에 총회관을 건립, 여자애국단에서도 재정적으로 협조하고 중일전쟁 당시 항일중국군 지원과 전쟁 난민, 부상병 구제를 위하여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총영사에 750달러를 모금, 지원하였다. 대한여자애국단의 지원활동에 대해 장개석의 부인인 宋美齡은 감사의 편지를 보내어 “대일항전은 중국 민족의 생존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복리를 위한 투쟁이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속할 것이며 귀국의 독립자유를 위해서도 마땅히 공동으로 노력하여 목적 달성에 힘쓸 것”임을 다짐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전쟁이 확대되어가자 구제금 수전통을 마련해 각 상점과 찬관에 설치하고 거스름돈을 모금하고 수전된 구제금 79달러를 송미령에서 송금하기도 하였다.

당시 송미령으로부터 “장래 우리나라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는 또한 대한이 자유 독립을 회복하는 날이올시다. 앞으로 양국 민중은 협력합작하여 잔폭한 적의 패망을 재촉함으로써 인도 정의와 및 세계화평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라는 회신을 받기도 했다. 한편 1939년에 송미령이 재미 중국동포에게 중국군용 겨울옷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대한인애자애국단은 중국군 솜옷 마련을 위한 의연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중국군을 지원하였다. 재봉법을 배워 군복을 짓고 부상군인들의 병상 방석과 짧은 이불을 제작하였다. 1940년 9월 17일 충칭에서 한국독립광복군 창설되자 1941년 1월 20일부로 재무총장 이시영 앞으로 500달러를 송금하였고 태평양전쟁 발발(1941.12. 7)하자 대한여자애국단은 재미한족연합회와 공동보조를 맞추어 미국 전시공작 후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적십자회원권을 로스엔젤레스에서 304달러 50센트 발매하고 로스엔젤레스 지부에서 미국 전시 공채 2만6천50달러를 매입하였다. 종전 후인 1945년 12월 31일 박경신과 신한민보사는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출전 한인 군인을 위문하고 출전 군인 어머니 위로회(1942.12.13.)로 희락회와 한식 향응을 베풀었다. 1944년 말에는 571달러의 위문금을 임시정부 재무부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후방지원활동은 거금은 아니지만 교민사회의 지지와 호응 아래 애국적이며 헌신적으로 전개되었다.

## 5. 맺음말

낮선 땅에서 도전과 불굴의 정신으로 새 삶을 개척한 한인이민 디아스포라에서 여성은 이민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독립운동을 위해 가족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서, 그리고 실의에 빠져 무기력하게 나날을 보내는 일부 남성들을 대신해서 여성은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며 나라와 겨레를 구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미주의 여성들은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며 한인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고된 이민생활 속에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었음은 눈앞의 개인적 이익에 연연하기 보다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높은 이상의 추구하고 민족의 장래와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전해주고자 했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비전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주에서 새롭게 시작한 여성들의 삶의 여정은 분명 한국 여성사에서 큰 획을 그은 시기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항일무장투쟁이나 의열투쟁과 같은 직접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한 것은 아니기에 참여했다 하여도 그 이름을 남기지 않고 있다. 여성은 한 개인이 성장하고 사회, 민족, 국가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었지만 여성의 흔적을 찾는 일은 어렵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조직을 이끌어나간 남성들의 기록만 남아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으나 여성의 고단한 삶은 개인의 경험으로 치부되어 오늘날 그 삶과 일생을 복원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설혹 이름이 밝혀졌어도 거증 자료의 미비로 독립유공자로 포상 받지 못하고 여전히 역사의 무대에 오르지 못한 여성이 많다. 미주 지역에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한 활약한 많은 여성들이 있으나 독립유공자로 포상 받은 이들은 대부분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의 부인들인데 그들의 신상이 이미 잘 알려있었기에 포상이 가능하였다. 미주 여성들의 생존 구슬을 받아 그녀들의 삶의 여정을 남기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미주 한인여성들의 독자적 활동이 독립운동사로 인정받음에 따라 서훈을 받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좀 더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된다.

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항한 이후 한국은 근대화, 식민지, 전쟁과 민족분단 등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왔다. 주권을 침탈당한 식민지 여성은 자의든 타의든 시대적 의무와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자신의 내면 안에서 독립된 자아를 발견한 여성들은 관습에서의 ‘여자’이기를 강요받았지만 스스로 사회적 존재로서 독립적 존재로서 홀로 서기를 했기에 사진신부로 미주에 와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3.1운동은 여성이 봉건적 인습과 식민지역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기 해방과 함께 대중운동의 일선에 나서게 해주는 분수령이 되었다. 정치적 지향을 추구하는 남성과 달리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독립만세운동에 뛰어든 국내 여성들과 독립정신을 공유한 여성들의 인류애적인 공동체 연대의식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수준과 지평을 넓혀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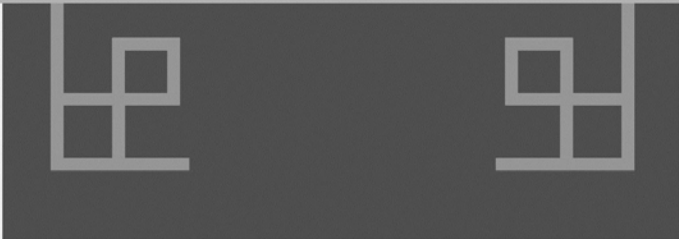


발제  
Ⅲ

중국 동북지역 항일여성들의 인생항로

김 형 목

사단법인 선인역사문화연구소





## 중국 동북지역 항일여성들의 인생항로

김 형 목 (사단법인 선인역사문화연구소)

### 1. 머리말

중국 동북지역인 이른바 만주는 우리의 옛 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정겹게 다가오는 한민족의 상징인 백두산과 압록강은 이를 방증한다. 한국인이란 누구도 이를 부정하거나 터부시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민족 영산이자 한민족 발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가온다. 백두산은 분단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콘’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민족사적 과제이자 한민족 부활을 위한 원초적인 문제임을 알려준다.

대대적인 흥행몰이에 성공한 영화 ‘암살·밀정·박열·동주·항거’ 등은 우리 독립운동사 이면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를 전후하여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알리는 역사서와 전기·만화 등이 봇물처럼 출판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딱딱한’ 역사교과서 속의 ‘박제화된’ 내용이 아니라 일상사로서 다가오는 등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암울하고 참담한 상황에서도 선조들은 전혀 좌절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살아간 ‘산증인’이었다.<sup>1)</sup>

광복70주년인 2015년은 여성독립운동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출발점이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여성독립운동가 특별전시회는 주목을 받았다. “역사의 현장에서 광복70주년에 다시, 그리고 처음 불려지는 이름들”은 역사무대에 여성들 존재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다른 하나는 여성가족부와 광복7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특별전시회였다.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독립을 향한 여성영웅들의 행진”을 주제로 했다. 전시는 1부 <구국의 횃불, 대한독립여자선언서>, 2부 <대한, 대한아! 내 너를 위해 영웅을 길렀도다>, 3부 <독립전쟁을 선포하다> 등으로 구성되었다.<sup>2)</sup> 전시 내용은 비록 “영성하고 빈약한” 느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여성독립운동가의 인생역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려는 시도로서 주목을 받았다. 며느리·아내·어머니 나아가 독립운동 동지로서

1) 김형목, 「정정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을 조달하다」,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여성독립운동가 열전-근대한국학 대중 총서 04』, 세창출판사, 2021.

2) 여성가족부, 『유관순 열사 외 다른 여성독립운동가들도 아십니까(정책홍보자료)』, 2015 : 국립여성사전시관, 『독립을 향한 여성영웅들의 행진(도록)』, 2015.

‘1인4역’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는 오늘날 ‘워킹맘’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이후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회는 정기적인 학술회의와 기념행사 등으로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다. 연구 성과를 정리한 단행본 발간은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부여하였다.<sup>3)</sup>

19세기 말엽 여성들은 500년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898년 9월 1일에 서울 북촌에 거주하는 아낙네들은 찬양회를 조직하여 이 땅의 여성권리 장전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을 발표했다. 이어 여성교육을 위한 관립여학교 설립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직접 사립순성여학교 설립·운영하기에 이르렀다.<sup>4)</sup> 이후 일제침략이 강화되는 가운데 여성들은 사회적인 진출과 아울러 계몽단체를 조직하였다. 목적은 여학교 설립에 의한 근대교육 보급으로 이어졌다. 국채보상운동 당시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여성들의 참여는 자긍심과 아울러 사회적인 책무를 일깨우는 든든한 밑거름이었다. 국채보상운동 110돌을 맞아 관련 자료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물’로서 등재된 배경에는 여성들 보이지 않는 활약이 크게 작용했다.<sup>5)</sup>

국망(國亡) 이후 3·1운동에서 여학생은 물론 노파·주모까지 참여하는 등 민족해방운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엄혹한 식민지배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화 실현에 앞장섰다. 식민지시기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은 이와 맞물려 진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국외에 거주하는 여성들도 예외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임시정부 요인의 부인들이나 여성광복군 활약상은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군자금을 모금하거나 대적(對敵) 심리전에 앞장서는 한편 독립전쟁 전선으로 참여를 마다하지 않았다. 여성들의 한국광복군이나 조선의용대에서의 활약은 대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sup>6)</sup> 사선을 넘나드는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등 여성들은 독립군 여전사로서 거듭났다.

이 글은 그동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약한 여전사의 인생항로 조명에 중점을 두었다. 시아버지나 남편 등 가족들 독립운동을 후원하면서 자녀 양육과 교육마저도 순전히 이들의 몫이었다. 생계를 위하여 경제활동과 심지어 독립자금 모금을 위해 국내로 잠입하는 모험도 마다하지 않았다. 헌신적인 활동은 지속적인 독립전쟁을 견인하는 든든한 토대였다. 물론 동지로서 부부의 인연까지 맺는 등 아름다운 ‘들꽃’으로 탄생하는 감격적인

3)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편저, 『여성사로 읽는 항일독립운동』, 도서출판 항일여성, 2020.

4) 박용옥, 「찬양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5) 최혜령, 「들불처럼 삶을 지핀 여성들」,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편, 『빛, 나눔으로 빛이 되다』, 도서출판 퍼서산장, 2019.

6) 김형목, 「1920-30년대 중국 관내와 동북지역, 러시아의 항일여성운동사 검토」,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발표문)』,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2019.8.

순간도 있었다.<sup>7)</sup> 개인적인 활약상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들의 역할을 조망하고자 한다.

## 2. 디아스포라 거점에서 독립군기지로

전통시대 가뭄수해 등 자연재해는 2-3년을 주기로 빈번하게 찾아왔다. 더불어 이질·천연 두콜레라 등 전염병 창궐은 사회적인 불안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였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sup>8)</sup> 대부분은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이는데 급급한 현실이었다. “흰 쌀밥에 고깃국 한 그릇이나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된 푸념이나 녀두리가 아니었다. 가장 현실적인 소망이자 구구절절한 염원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적 수탈로 더욱 열악한 현실로 내몰렸다.<sup>9)</sup> 삶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무게만큼 생존 자체가 중차대한 문제이자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왔다.

조선시대 월경은 국사범(國事犯)으로 취급되는 중대한 범죄였다. 현장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곧바로 효수형(梟首刑)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관-특히 국경지대-에게 부여될 만큼 엄중하게 다스렸다.<sup>10)</sup> 그럼에도 위협을 무릅쓰고 새로운 생활터전을 찾아 두만강압록강 대안인 중국 동북지역이나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사에서 생명을 건 ‘디아스포라’는 186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11)</sup> 물론 이전에 개인적인 월경으로 정착한 경우도 있었으나 산발적인 형태였다. 여름철에 현지 군항·도로·요새지 건설 현장에 젊은 한인들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주로 농한기를 이용한 계절적인 임금노동 형태였다.<sup>12)</sup>

7) 김형목은 2020년 1월부터 매달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부부독립운동가를 『독립기념관』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경기일보』에도 2021년 4월부터 경기도 출신 부부독립운동가를 연재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인생여정이 보다 생생한 생활 속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8) 이상배, 「18~19세기 자연재해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89, 국사편찬위원회, 2000, 119~124쪽.

9) 김형목, 「최용신 현실인식과 농촌계몽운동」,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944쪽 : 김형목, 『최용신 평전-농촌계몽에 헌신한 영원한 상록수』, 민음사, 2020, 76-79쪽.

10) 박창욱, 「조선족의 중국이주사 연구」, 『역사비평』 15, 역사비평사, 1991, 182-185쪽.

11) 뒤바보, 「아령실기(2), 이식된 원인」, 『독립신문』 1920년 3월 1일자 : 반병률, 「노령 연해주 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1905~1911)」, 『한국근현대사』 7, 67-68쪽.

12) 유진률, 「개탄론」, 『독립신문』 1898년 10월 18일자.

빈번한 자연재해와 지방관의 불법적인 수탈 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발적인 월경은 점차 집단적인 대담한 이주로 이어졌다.<sup>13)</sup> 이곳을 중심으로 한인 이주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다. 1963년 함경도에 거주하던 13가구는 노보고로드만의 포세이트로부터 약 5km 떨어진 치신허(Tizinkhe) 강 계곡에 정착하였다. 1864년에는 60가구 308명, 1868년에는 165가구, 이듬해에 무려 766가구로 급증했다.<sup>14)</sup> 이들 대부분은 당장 필요한 식량조차도 없어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한인사회는 물론 이주러시아인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러시아당국은 이들을 조선으로 되돌려 보내려 하였으나 이주한인들의 완강한 반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마침내 1874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개척리라는 집단거주지인 한인촌(韓人村)이 형성되었다. 1878년 20개 촌락에 6,150여 명이 거주할 정도로 이주한인의 증가는 뚜렷하였다. 러시아당국은 이들 중 일부를 국경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다시 이주시키는 등 한인에 대한 통제를 가했다.<sup>15)</sup> 미국일본 등 외세와 연결된 한인에 대한 경계심이 작동되는 시작이었다.

연해주 초기 이주 상황에 대하여 필명을 뒤바보로 사용한 계봉우(桂奉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신허의 개척 기원 4197년(1863년) 갑자 춘에 무산 최운보(崔運寶), 경흥 양응범(梁應範) 2인이 가만히 두만강을 건너 혼춘을 경유하여 지신허(차는 연추 등지)에 래주하여 신개간에 착수하니 서대륙(西大陸)을 처음 발견한 「콜럼버스」의 기공(奇功)과는 의론(擬論)할 수 없으나, 어찌던지 고래의 쇠국완몽(鎖國頑蒙)을 선파(先破)하고 모사역행(冒死逆行)하여 척식의 최선봉된 그 가적(嘉績)은 상탄(賞嘆) 아니할 수 없다. 이때에 연추 연해안에는 한인(漢人) 10여 호가 유하여 혹은 자염(煮鹽), 혹은 농작을 업(業)할 뿐이고 그 외에는 흑정자(黑頂子)에 주둔한 아병(俄兵) 적을 부분이 있을 따름이다.…(하략)…<sup>16)</sup>

지신허 최초 이주는 1864년 무산인 최운보와 경흥인 양응범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는 연해주 한인이주를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비유할 만큼 주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

13) 유진률, 「개탄론」, 『독립신문』 1898년 10월 15·17일자.

14) V. Grabe(남만주철도주식회사 서무부 조사과 역), 『極東露領における黃色人種問題』, 1912, 103쪽 : 고승제, 「연해주 이민사연구(1853~1945)」, 『국사관논총』 11, 국사편찬위원회, 1993, 1쪽.

한인이주자에 대한 통계는 연구자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다. 이는 공식적인 통계와 현지 경험자가 남긴 기록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당시 한인이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는 이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15) 김형목, 「러시아 연해주 계동학교의 민족교육사에서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44쪽.

16) 뒤바보, 「아령실기(2), 이식된 원인」, 『독립신문』 1920년 3월 1일자.

였다. 이는 국법으로 엄금한 설패국정책을 타파하는 첫 번째 해외로 진출한 개척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서 비롯되었다. 나아가 연해주 한인사회에 대해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는 여기에서 찾아진다.

이주한인은 한인촌을 중심으로 러시아 관헌의 허가 아래 도소(都所)를 설치하는 등 권익옹호에 나섰다. 임원은 도헌(都憲, 일명 비지께)이나 사장(社長) 등으로 한인사회를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최초 도헌은 1884년 포세이트에 임명된 최재형이었다.<sup>17)</sup> 임무는 세금징수행정명령 전달·사소한 법적 결정·치안사무 등이었다. 도헌 밑에는 비공식적인 실무진으로 농촌에는 풍헌(風憲)과 도시에는 부양(父養) 등을 각각 두었다. 이들은 러시아어나 중국어에 능통한 인물로서 사실상 대외교섭 창구였다. 러시아 당국은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가운데 한인사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이를 허용하였다.<sup>18)</sup> 이는 전통사회에서 운영되던 향약을 현지 실정과 시대변화에 맞게 개편한 조직체이었다. 예속상교·환난상휼·덕업상관·과실상규 등 규약문은 민화·민의소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한인들의 가장 긍정적인 면은 친척과 늙은이, 이웃 등 같은 동포에 대한 존경 표시와 같은 성을 가진 먼 친척들까지도 같은 공동체라는 의식이 강하고 서로가 돕고 보호해주며, 이러한 좋은 감정으로 자기 친척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대해준다. 이러한 한인들 관습은 문명화된 민족들보다도 더 우수해 보이는 점이다. 그리고 매사에 그렇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에 한인들은 서로가 돕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있으며 개개인이 자기의 선물을 준비하든지,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도와준다.…(중략)…러시아 어느 농촌마을에서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리를 이동할 때 한인들은 자기네 동포뿐만 아니라 러시아인이나 중국인 등에게도 숙식을 보장해준다.…(하략)…<sup>19)</sup>

향촌공동체에 입각한 생활습관은 고난 속에서 한인사회를 유지하는 밑거름이었다. 연장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향약과 같은 자치조직은 미풍양속을 권장하는 가운데 환난상휼하는 동포애를 발휘하는 밑바탕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러시아인에게 문명사회를 능가하는 참된 생활공동체로서 인식되었다.

1908년에 이르러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10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자치조직은 한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모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제 신한촌은 러시아를

17) 『한인신보』 1917년 9월 23일 「강동선해」.

18) 뒤바보, 「아령실기」, 『독립신문』 1920년 3월 30일자 : 황옥, 「재외 각 지방 상황(3): 蘇子河 지방정황(1)」, 『독립신문』 1923년 4월 4일자.

19) 엔 빠세긴, 『아무르의 한인들』; 이상근, 『한인 노령이주사 연구』, 66-67쪽에서 재인용.

대표하는 독립운동기지로 변모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았다. 1909년 하얼빈역두에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척살 계획이 결의된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계동학교나 한민학교 등 사립학교에 의한 인재양성은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책원지’로서 자리매김했다.<sup>20)</sup>

한편 조선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 동북지역에 정착한 역사는 오래되었다. 요(遼)·금(金)·원(元)나라 시기에는 조선 사람들을 납치돼 갔거나 강제 이주를 당했다. 병자호란 당시에 포로로 납치된 후 이곳에서 정착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럼에도 봉금지역(封禁地域)이라는 이유로 청나라는 삼을 캐러 가거나 다른 경제적 목적으로 이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봉금정책에 따라 조선왕조도 변금정책(邊禁政策)으로 통제에 적극적이었다.

봉금지역으로 통제에도 조선인들은 개인이나 소수단체를 만들어 월경해 마을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1869년 함경도 지방에 대흥년이 들자 월경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하였다. 조선정부는 양전관(量田官)을 파견해 전정(田政)을 설치하고 토지권리권인 지권(地券)을 내주었다. 이리하여 법정주민(法定住民)이 될 수 있도록 알선했다.<sup>21)</sup>

회령부사 홍남주(洪南周)는 1880년 두만강 대안 개척을 주도하며 회령 대안에 100여 정보에 달하는 평야를 개간하는 집단 월경을 시도했다. 즉 홍남주는 흥년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서북 지역 주민들을 구제하고자 토호 이인회(李寅會)에게 두만강을 건너 토지를 개간하고 이주를 허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주민들을 권유하여 월간원서(越壑願書)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sup>22)</sup> 이듬해 청나라는 실질적인 영토를 확보하려고 봉금령을 해제하였다. 동북지역으로 집단적인 이주 거점은 간도로 불리는 용정이었다.<sup>23)</sup>

중국어에 간도라는 지명은 찾아볼 수 없다. 간도는 조선인들이 중국 땅을 가리키면서 시작된 말이다. 이 용어는 어떤 지명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고, 비밀리에 만주로 월강하는 조선인들이 사용한 ‘은어’였다.<sup>24)</sup> 즉 자신들의 월강이나 만주에서 철새 농사를 알리지 않으려고 만주와 함경도 사이 두만강에 있는 섬이라는 의미이다. 당시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개척지를 간도라고 했다. 1904년에 한인 관리 이범윤(李範允)이 월간국(越壑局)에 보낸 문서에서 처음으로 ‘치아장[假江]’의 땅을 간도라고 부른 공식적인 처음 명칭이다.<sup>25)</sup>

20) 김형목, 「러시아 연해주 계동학교의 민족교육사에서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4, 60-69쪽.

21) 최봉룡,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역사와 현황 및 그 전망」, 『단군학연구』 7, 단군학회, 2002, 301-337쪽.

22) 윤정희, 『간도개척사』, 1954; 윤정희, 『간도개척사』-한국학연구총서 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1.

23) 김주용, 「1910년대 북간도비밀결사운동」, 『한국독립운동과 만주-이주·저항·정착의 접이지대-』, 경인문화사, 2018, 6-7쪽.

24) 신용하, 「간도와 연해주」, 『한민족공동체』 13, 해외한민족연구소, 2005, 173-185쪽.

간도는 백두산 동북쪽, 두만강 대안의 연길(延吉)·화룡(和龍)·왕청(汪淸)·훈춘 4현을 가리키나 넓게는 액목(額穆)·돈화(敦化)·동녕(東寧)·영안(寧安) 등을 합칭하기도 한다.<sup>26)</sup> 두만강 대안의 4현과 백두산 북쪽의 안도와 돈화 2현을 합쳐서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이뤄졌다. 때로는 이곳을 북간도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조선족의 개척이 서쪽으로 확산함에 따라 북간도의 서쪽인 백두산 서남쪽의 압록강 대안을 남만주 또는 서간도라고 했다.

이주한인들은 이곳 별판에 스스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민족사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조선족”이란 이름으로 중국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운명이었다. 한인거류지 형성은 1900년 러시아가 중국의 의화단운동을 진압하고 “동청철도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훈춘으로부터 연변지역과 조선의 북부를 수시로 넘나들었다. 이에 중국인 관원들과 한족·만주족 중 상층인들은 길림 등지로 피난했다. 혼란한 상황에서 한인이주민들은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점차 촌락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sup>27)</sup>

함경북도 종성·회령 등지에 지배세력인 김약연(金躍淵)을 비롯한 일행은 1899년 2월 용정 명동촌으로 집단이주를 단행하였다. 이들은 장재촌을 중심으로 정착하는 가운데 자녀교육을 위한 공동기금인 학전을 마련했다.<sup>28)</sup> 이어 한문을 위주로 가르치는 규암재·소암재 등도 설립하는 등 민족정체성을 일깨우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명동촌 일대의 활발한 개간 사업은 경제적인 향상과 더불어 생활안정화에 기여했다.

러일전쟁 발발에 이어 을사늑약 체결은 한인사회에 청천벽력과 같은 비극적인 소식이었다. 국권회복을 도모하려는 망명자 집단은 용정 등지로 몰려들었다. 이른바 ‘민족적인 대이동’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들은 비록 “국가는 망할지언정 정신만은 살아 있다면 국권회복은 가능하다”는 신념에 차 있었다. 1906년 10월경 이상설(李相畲)을 중심으로 이동녕(李東寧)·여준(呂準)·정순만(鄭淳萬)·박정서(朴禎瑞) 등은 이곳 최초 근대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했다.<sup>29)</sup> 용정촌에 민족교육기관을 설립한 이유는 국외 항일세력과 연대나 정보 교류에 유리한 지리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즉 이주한인이 상당수 거주하는 연해주와 북쪽으로 통하여 정보 교류에 편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와 거리가 가까워 동북지역이나 연해주 이주한인들에게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에 적절하다는 판단이었

25) 최봉룡, 「북간도 한인자치운동의 효시: 간민회의의 시말과 그 성격」, 『민족학연구』 7, 한국민족학회, 2009, 133쪽.

26) 윤병석,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3, 3쪽.

27) 연변조선족자치주부녀련합회, 『연변여성운동사-신민주주의혁명시기-』, 연변인민출판사, 1991, 5~7쪽.

28) 송우혜, 「북간도의 바람소리가 듣고 싶다」, 『여성동아』 6월호, 1985, 111쪽 : 송우혜, 「명동마을 이야기」, 『한민족공동체』 3, 해외한민족연구소, 1995, 190쪽.

29) 이봉구, 「연변 제일소 신식학당-서전서숙-」, 『연변문사자료』 5, 연변정협문사자료위원회, 1988, 3쪽.

다. 대한제국기나 1910년대 이곳 교육기관을 ‘독립군양성소’라고한 표현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sup>30)</sup>

한인사회 ‘희망의 등불인’ 서전서숙은 설립된 지 1년만인 9-10월경에 폐교되는 비운을 맞았다. 학교 설립과 운영에 주역인 이상설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 헤이그특사로 떠났다.<sup>31)</sup> 이때를 전후로 이동녕과 정순만도 학교 운영에 손을 떼는 등 재정적인 압박이 만만치 않았다. 1907년 8월 용정에 설치된 통감부간도임시파출소는 간도 일대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과 아울러 서전서숙에 대한 압박과 감시를 강화했다. 심지어 일진회를 동원하여 식민지교육 본산으로 삼으려는 술책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일제는 반일민족운동과 국권회복을 도모하는 민족교육 일체를 허용하지 살벌한 상황이었다. 숙장 여준은 폐교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sup>32)</sup>

서전서숙은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역사무대에서 사라졌지만 동북지역 일대 민족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계기로 한인촌 곳곳에는 독립군 양성을 위한 민족교육기관이 탄생하였다. 대표적인 학교는 바로 명동학교로 1908년 4월 27일에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 명예숙장은 박정서(일명 박무림), 숙장은 김약연, 재무는 문치정(文治政), 교사진은 김약연을 비롯한 김학연(金學淵)·남위언(南葦彦)·김하규·여준 등이었다. 운영비는 마을 공동기금인 학전 수입으로 충당하였으며, 학부형 기부금과 의연금도 중요한 재원 중 하나였다.<sup>33)</sup>

이듬해 4월에는 명동학교라는 명칭 변경과 아울러 교육 내실화를 다지는 계기였다. 신민회 청년회원으로 활동하던 정재면(鄭載冕)이 국내에서 교사로 초빙되었다. 그는 원산에서 ‘북간도교육단’을 조직한 후 현지로 이주하여 용정교회와 명동교회를 설립하는 등 선교사업에 주력하였다. 숙장인 김약연에게 기독교를 권유하는 한편 명동학교 교과목에 성경을 편성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이념도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민족교육에 입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었다.<sup>34)</sup> 기독교계 학교로의 전환은 일제로부터 간섭과 통제를 비교적 적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문화 수용에 상당히 유리하였다. 이후 간도 일대 교회에 학교가 병설되는 등 선교사업 일환으로 교육운동이 확산되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특히 이동휘(李東輝) 교육과 전도 활동은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었다.<sup>35)</sup>

30) 이지택,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북간도(5)-서전서숙-」, 『중앙일보』 1972년 10월 18일자.

31) 『해조신문』 1908년 5월 26일 「北間島瑞甸學校瓦散實錄」.

32) 김주용, 『일제의 간도침략과 한인사회』, 도서출판 선인, 2008, 54-55쪽.

33) 조창혁, 「민족계몽운동의 첫 진지, 명동학교- 자랑스러운 조선족 교육사업」, 『연변일보』 1984년 3월 22일자.

34) 서광일, 「일제하 북간도 한인들의 민족주의 교육운동 연구(1906~1919)」, 『인하사학』 3, 인하대 사학회, 1995, 291쪽.

35) 반병률, 「이동휘와 1910년대 해외 민족운동-만주·노령연해주 지역에서의 활동(1913~1918)-」, 『한국사론』 33, 서울대 국사학과, 1995.

명동학교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명동중학교로 발전했다. 교사와 재학생들은 인근 6개 마을에 야학을 운영하는 등 문맹퇴치에 노력하였다. 특히 부녀자들에게 양잠과 양봉 등을 가르쳐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 여성교육을 위한 명동여학교도 병설했다.<sup>36)</sup> 이는 간도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었다. 교사진은 이동휘 차녀인 이의순(李義梅)을 비롯한 정신태(鄭信泰)·우봉운(禹鳳雲) 등으로 ‘삼국전도회’ 회원들이었다. 더불어 교사들 자질도모를 위한 하기강습회도 간민회(墾民會)와 함께 개최하였다.<sup>37)</sup>

1919년 용정 3·13반일만세운동 이후 명동학교를 중심으로 한 항일운동이 전개되자, 일제는 한층 탄압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듬해 이른바 경신대참변 때인 1920년 10월 19일과 20일에 걸쳐 “항일운동 책원지”인 명동학교를 전소시켰다.<sup>38)</sup> 참담한 상황에서도 민족교육에 대한 열망은 되살아났다. 한인들은 1922년부터 2년간 명동학교 재건에 혼신을 기울여 새로운 교사 5칸을 마련하였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명동학교에 대한 기대감은 대단히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제의 통제와 압박은 계속되었다. 1924년 갑자년 대홍수로 심각한 재정난까지 겹쳤다. 더욱이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라 반종교투쟁도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기독교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명동학교는 졸업생과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김약연 사임과 중학교 학생들은 은진중학교로 전학하면서 1925년 명동중학교 시대는 막을 내렸다.<sup>39)</sup>

한인 자치를 위한 단체인 간민회도 조직되었다. 1909년 9월 간도협약이 체결된 후 박무림은 30명 이주 한인의 이름으로 한민 자치회 설립을 계획하였다. 일제의 간섭으로 자치회는 교육회로 바뀌는 가운데 강제병합 이후에는 한민이 간민(懇民)으로 변경되었다.<sup>40)</sup> 북간도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의 지도자로서 김약연은 이제는 공화제에 의한 백성의 나라를 세울 꿈을 가졌다.

간민교육회는 민족교육과 근대교육을 지향하여 국내의 여느 학교보다 수준이 높았다. 명동중학, 광성중학, 창동중학, 정동중학 등은 병식체조 애국창가 특히 국사와 국어 교육에 치중하였다.<sup>41)</sup> 애국과 독립은 수업시간의 중요한 주제였다. 교사들은 열성을 다하는 등 학생들에게 문화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일깨웠다. 명동학교와 은진중학교는 졸업생들의 회고

36) 박주신, 「사립학교의 설립과 활동」,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2000, 291-293쪽.

37) 『신한민보』 1913년 9월 19일 「원동소식」.

38) 강덕상, 『현대사자료』 28(조선 4), 미즈루書房, 1970, 453-455·491쪽; 서대숙, 『간도 민족독립운동의 지도자 김약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149-158쪽.

3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8(문화투쟁사), 1976, 350-351쪽.

40) 김춘선, 「간민교육회」,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 편 I)』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41) 박주신,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 아세아문화사, 2000, 269-272쪽.

에 의하면, 3·1운동과 개천절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도서관에는 단군초상을 걸어 두었다. 북간도의 기독교는 천당이나 지옥보다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해방을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이곳 사립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 차원에서 벗어나 조국 독립과 민족 해방을 주도하는 독립전사를 배출하는 요람지로 자리매김했다.

### 3. 근대교육 수혜로 여성들의 자아각성

한인여성들은 20세기 초부터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신문화 계몽운동으로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을사늑약과 강제병합은 이곳 한인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였다. 우국지사나 지식인 등의 망명은 이를 전개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었다. 이들은 각지에 사립학교를 건립하여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키는 민족교육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중장기적인 항일투쟁을 이끌기 위한 다양한 계몽활동도 벌였다. 특히 911년 신해혁명과 1915년 신문화운동은 새로운 사회질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910년대 동북지역은 많은 한인들이 몰려왔으나 한글에 대한 불통일로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극로가 한글 연구를 결심한 직접적인 배경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sup>42)</sup>

1906년 서전서숙을 시작으로 명동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민족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연길지역의 경우에는 1908년 4월에 이동익 등이 와룡동에 창동강습소, 이동휘·김립·이동춘 등이 소영자에 광성강습소, 김약연 등이 화룡현(지금의 용정시) 명동촌에 명동강습소를 세웠다. 이듬해 조직된 간민교육회는 기관지로 『월보』를 발간하여 근대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선전하였다. 강제병합 이후에는 창동강습소·광성강습소·명동강습소·정동강습소 등은 중등 교육기관으로 발전되었다.<sup>43)</sup> 1916년 12월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연변 4개 현에는 156개소의 사립학교와 서당 등에 3,836명에 달하는 재학생이 있었다.<sup>44)</sup> 당시 예수교·천주교·기독교·대종교·원종교 등 종교단체도 많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등 변화에 부응하였다. 1911년 종교계에서 세운 사립학교는 11개소에서 2년 뒤에는 42개소로 증가되었다.<sup>45)</sup>

당시 신문화운동은 미신 타파와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등 봉건적인 인신 구속을 적대시했다. 계몽운동은 반일이라는 국제적인 정치 상황과 긴밀히 결합되어 반일 민족의식을 크게

42) 이극로(조준희 옮김, 『고투40년』, 도서출판 아라, 2014, 35-36쪽.

43) 연변조선족자치주부녀연합회, 『연변여성운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2, 15쪽.

44) 강덕상, 『현대사자료』 27(조선 3), 1969, 141쪽.

45) 연변조선족자치주부녀연합회, 『연변여성운동사』, 16쪽.

불러일으켰다. 과학과 근대문명의 강조, 민주주의의 제창 등은 반일 민족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sup>46)</sup> 이는 사립학교의 운영 취지, 교과목 구성, 교사 등용, 학교세칙, 교수 내용 등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중요한 관심사는 여성해방·남녀평등·남녀공학 등이었다. 이와 더불어 인간관계에서 수직적인 윤리 도덕과 족권(族權)·신권(神權)·부권(父權)·부권(夫權) 등의 속박에서 여성들을 해방시키려는 의도였다.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들을 반일 대열로 결집하는데 있었다. 여학교 설립이나 사립학교에서 여자반 편성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려는 일환이었다. 사회의 최하층으로 교육 수혜마저 거의 없었던 여성들은 새로운 문화와 사상을 수용하는 가운데 사회구성원으로 자각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았다.

연변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여자소학당은 1908년 구자운·김하석·이동휘 등이 연길 소영자에 세운 광성여자소학당이다.<sup>47)</sup> 이 학교는 신문화운동이 시작되는 초기에 민족독립운동의 선구자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이어 화룡현 용암동의 명동여학교, 연길현 신명촌의 신명여학교, 대동교의 한성여학교, 용정의 상정여학교, 국자가 소영자의 길신여학교 등도 설립되었다. 1912년에 명동학교가 명동중학으로 승격된 후 여학급을 설치하였다. 재학 중인 여학생은 중학부에 46명, 소학부 보통과에 53명, 고등과에 12명 등이었다. 여학부 교원은 정신해·이의순·지봉순 등이었다. 여학생은 연변지역 학생 총수의 5%에 불과할 정도였다.<sup>48)</sup>

종교계는 여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시세 변화를 일깨우는 교육현장으로 자리매김했다. 1910년에 예수교에서 세운 상정여학교를 토대로 1913년에는 캐나다 장로교회 박결 목사의 부인이 용정에 여학교를 꾸리고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종교 신앙 여부를 가리지 않고 수용했다. 1926년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종교계에서 세운 여학생은 697명으로 총학생의 10%를 차지하였다.<sup>49)</sup> 특히 기독교의 교리는 현실의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정신세계를 펼쳐주었다.

동시에 선교 활동은 빈궁과 망국노의 설움을 겪던 여성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나 마찬가지였다. ‘절대자’ 앞에서 평등이라는 한계는 있었으나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존재임을 스스로 터득하는 계기였다. “인간의 생명과 권리는 상제가 부여한 것이며 상제 앞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평등하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교리는 여성들에게

46) 박금해, 「20세기 초 간도지역의 민족주의 교육기관들」, 『중국 조선족 교육의 역사와 현실』, 경인문화사, 2012 참조.

47) 박주신, 「광성학교」,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305-306쪽.

48) 연변조선족자치주부녀연합회, 『연변여성운동사』, 18쪽.

49) 연변조선족자치주부녀연합회, 『연변여성운동사』, 18쪽.

영혼의 해탈을 탐구하는 길을 안내하는 지름길이나 마찬가지로였다.<sup>50)</sup> 여성들은 자신들의 인신 자유와 인격 존엄을 위하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생활에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1907년 일제는 불법적으로 용정에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설립한 이후 여성들의 종교 활동에서 역할은 두드러졌다. 중국 지방관헌의 반일운동 감시와 금지는 자구책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이었다. 선교사업은 한인여성들 응집뿐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지지하였다. 이들은 무장부대에 군자금 지원과 더불어 부녀대를 조직하여 군량과 의복을 보내주었다. 예를 들면 명동여학교 교사인 정신태·이의순·우봉운 등은 “3국부녀전도회”를 조직했다.<sup>51)</sup> 이들은 한인여성들을 단결시키는 등 항일운동 서막을 열었다. 항일활동가 황지영은 민족정신을 고창하는 등 민족교육 시행에 적극적이었다. 용정 3·13항일운동에서 그녀는 무대에 올라 강연하는 등 독립투쟁을 지원했다. 이후 임종신과 최진실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기독교여자청년회는 항일의식을 고취와 동시에 무장단체를 성원하고 군자금까지 모금하였다.<sup>52)</sup>

1919년에 조직된 반일무장단체 대부분은 여러 가지 종교단체를 핵심으로 구성되었다. 간도국민회와 간도청년회는 기독교와 천도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였다.<sup>53)</sup> 간도 국민회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가입했다. 이들은 선교의 명의로 여성들에게 항일운동을 선전하면서 무장부대 지원에 앞장섰다. 이들은 종교적인 기치를 내걸었으나 민족주의 색채와 강렬한 반일의식을 띠었다.

여성들에 대한 계몽운동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폭넓게 진행되었다. 대다수 부인들이나 학령아동을 초과한 여성들은 학교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사회교육은 근대문명으로 깨우쳐주는 계몽운동의 중요한 과제였다. 계몽론자들은 야학이나 부녀학교 등을 세워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근대민족의식을 불려일으켰다. 여성들에게는 양잠법이나 양봉법을 가르쳐 주어 그들이 종사하는 농사일과 양식업에 도움을 주었다.<sup>54)</sup> 명동, 장동, 신동 등 부근 6개 마을에 야학교를 설립하여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었다. 많은 학교에서는 방학에 학생들을 조직하여 야학을 만들어 문맹퇴치에 나섰다. 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기간에 마을의 청장년과

50) 서평일, 「일제하 북간도의 민족운동과 기독교(1906~1921)」, 『북간도지역 한인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92-294쪽.

51) 신영숙, 「[한국여성인물사전] 100. 우봉운(禹鳳雲)」, 『이투데이』 2017년 4월 24일자.

52) 연변대학여성연구중심, 『여성연구』 4, 연변대학출판사, 2003, 188쪽.

53) 채근식, 「간도국민회」,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49 : 서평일, 「일제하 북간도의 민족운동과 기독교(1906~1921)」, 『북간도지역 한인 민족운동』, 286-287쪽.

54) 이명화, 「항일독립운동사상에서의 명동학교의 위상」, 『북간도지역 한인 민족운동』, 164-167쪽.

여성들을 조직하여 야학을 세웠다. 1920년대에 이르러 연변 각지 농촌에서는 야학에 다니는 학원의 70% 이상은 여성들이었다.

1910년대와 20년대에 진행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신문화 계몽운동에는 항일운동이 결합되어 점차 대중 속에 전파되었다. 여성들에 대한 계몽운동은 근대문명을 제창하여 봉건적인 윤리 도덕을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남녀 평등과 여성해방 쟁취에 있었다. 여성들은 산수·어문·역사·지리·창가·도화·체육·물리·화학·대수 등으로 근대지식을 배양하는 가운데 반일민족의식을 심화시켰다.<sup>55)</sup> 이들은 봉건적인 속박과 우매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해방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각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빈궁한 생활 속에서 이주한인은 자제교육에 열성적이었다. 가난의 대물림을 타개하고 장차 독립전쟁에 전사를 양성함을 표방하였다. 간민교육회는 의무교육 일환으로 각지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했다.<sup>56)</sup> 이와 같은 변화는 3·1운동 이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승첩을 거둘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 4. 여성들의 항일투쟁에 대한 평가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주한인 여성들도 항일투쟁에 투신했다. 이들은 국내와 달리 직접 무장투쟁에 헌신하는 등 전쟁에서 싸우다가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 성과물은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발간되었다.<sup>57)</sup> 학술서적이라는 성격이 아니라 체제 유지와 선전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1930년대 중국공산당계 항일투쟁 과정에 참여한 한인여성들 활동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증명한다.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사화나 약식 전기물 형태이다. 책마다 서술내용이 다른 사례가 많아 역사적 사실로서 수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닌다. 비판적인 고찰과 아울러 반드시 자료에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항일여성가들에 대한 풍부한 사실을 제시한 부분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항일녀투사들』은 20여 명에 달하는 항일여전사를 소개하였다. 이는 최초로 발행된 여성 항일운동을 정리한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크다. 다만 집필자는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55) 최봉룡, 「북간도 간민회의의 조직과 활동 및 성격」, 『북간도지역 한인 민족운동』, 208-212쪽.

56) 박문일, 「1906~1919년 기간 중국 동북조선인민들의 사립학교 교육운동과 그의 역사적 역할」, 『국사관논총』 15, 국사편찬위원회, 1990.

57)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편, 『항일녀투사들』, 연변인민출판사, 1984 : 김재국 주편, 『중국조선족 항일녀투사들』, 료녕민족출판사, 1993 : 김양 주필, 『근대중국 조선족녀걸』, 북경민족출판사, 1995.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자료 활용의 신빙성 등에 아쉬움을 남긴다. 한인여전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름진 고향의 논밭을 일제로부터 다시 찾아 쌀밥을 먹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명화, 우리 고향에는 기름진 논밭이 아주 많아. 이제 왜놈들을 쫓아내고 지주가 없어지는 날에는 인민들이 다 이밥을 먹으며 행복을 누리지 되겠지. 그때가 되면 우리들은 정말 이 처창즈 생활을 옛말로 외우게 될 거야...(하락)....<sup>58)</sup>

항일여전사는 동북지역 항일열사 중 1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들은 험난한 항일전쟁에 참가한 배경과 정신 등을 고찰하여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중국조선족 항일녀투사들』은 이추악을 비롯한 44명의 항일여전사를 조명했다. 구술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를 보이거나 새로운 방법론에 의한 역사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대중국 조선족녀걸』은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 여전사 70여 명을 망라하였다. 관점은 사회주의계열 인물을 부각시키는 등 발간한 목적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sup>59)</sup>

『연변인민의 항일투쟁』에서는 연길시 항일열사 517명 한족은 5명뿐이고, 여성투사는 73명이나 되었다. 도문시는 188명 중 한족은 4명과 여성 20명이었다. 용정은 817명 중 한족 8명과 여성 108명 등이었다. 이들은 희생은 1932과 1933년에 집중되었다.<sup>60)</sup> 9·18 만주사변 이후 괴뢰정권 만주국과 관동군을 물리치기 위한 항일투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여성들은 침략세력을 저지하려는 전사로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항일여성운동과 관련된 성과물이 나왔다. 저자는 우당 이회영 아내인 이은숙 여사로 자신의 체험한 바를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정음문고 65』라는 제목으로 정음사에서 1975년 출판했다. 1981년에는 『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제목을 변경하여 중판되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목받지 못한 이은숙은 자신의 경험을 육필로 썼다. 내용은 일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기도 하나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당시 우당과 결혼한 여성이 처한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58)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편저, 『항일녀투사들』, 101-102쪽.

59) 장세운, 「만주지역 독립운동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론』 26, 국사편찬위원회, 1996, 432쪽.

60) 중공연변주위 당사사업위원회 편저, 『연변인민의 항일투쟁(자료집)』, 연변인민출판사.

나는 가군(우당)을 대할 제 하늘같이 양망하고 스승같이 모셨는지라. 가군께서 “변창한 대소가를 혹시나 잘못할까. 전 소생 3남매에게 잘하고 친해하며 말없이 화목을 주장하라”하고 이르시던 말씀 지금도 어제 같도다.<sup>61)</sup>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른과 결합한 한 젊은 여인의 심사를 엿볼 수 있다. 남편에겐 재혼 전 부인과 소생이 있었다. 자식들과 화목이 이 집안에 큰 문제였고, 우당도 이를 염려했다. 여사는 남편의 걱정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말없이 따랐다. 이는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으로 여겼다.

박현옥은 항일무장투쟁기 중국공산당의 여성해방정책이 중국 동북지역과 유리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부녀회의 사례를 들어 당원인 책임자와 회원인 농민여성 사이에는 여성해방과 계급문제가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했다.<sup>62)</sup> 이는 일국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이중모순’의 담지자로서 항일여성운동을 규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족모순 극복은 곧 조국광복이자 중국 해방이라는 현실적인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박용옥은 여성들의 항일무장투쟁은 초기에 취사나 재봉과 같은 전통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직접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역할 인식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sup>63)</sup>

한인여전사 활동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인물은 윤희순·남자현·허정숙·김숙경 등을 들 수 있다. 국망 이후 환인현에 터전을 잡은 윤희순은 채인산과 중국인들 도움으로 동창학교 분교인 노학당을 설립·운영하여 50여 명에 달하는 인재를 양성했다. 시아버지·숙부와 남편·시동생 등이 연이어 사망하자 그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다. 아들 유돈상은 어머니의 격려로 180여 명이나 모집하여 무순을 본거지로 조선독립단을 조직했다. 윤희순은 아들을 도와 일본군 주둔한 곳으로 들어가 강제로 징병된 조선청년들을 조선독립군으로 편입시켰다.<sup>64)</sup> 또한 자신과 가족의 항일투쟁사를 『일생록』에 남겼다.

남자현은 경술국치 이후 남만주로 망명길에 올랐다. 서로군정서 여자대원으로 입단하여

61) 이은숙(이철우, 한홍구 교열), 『서간도 시종기』, 일조각, 2017, 57쪽.

62) 박현옥, 「만주 항일무장투쟁하에서 해성해방정책과 농민여성」, 『아시아문화』 9,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3.

63) 박용옥,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 여전사 연구-30 여전사의 전기들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29,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1995.

64) 김양, 「중국에서의 한국인의 반일독립운동-중국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윤희순의 반일애국투쟁정신-」, 『한말-일제강점기 국내외 의병항쟁과 국권회복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23쪽 : 윤정란, 「남만주지역 한인여성들의 항일활동」, (사)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08, 370-371쪽.

이동하는 부대를 따라 이동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이동 중 발생한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켰다. 1921년에는 액목현 육도구전투에도 직접 참전할 정도였다.<sup>65)</sup> 독립운동방략을 둘러싼 갈등을 통합·조정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려 중국 동북지역 각지로 돌아다녔다. 일제의 만주침략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자신의 무명지를 잘라 “조선독립원”이라는 혈서를 국제연맹 조사단에 보냈다. 이처럼 이주한인들에게 항일구국정신과 생활계몽 등을 통하여 한인들 권익옹호에도 앞장섰다. 액목이나 반석 등지 여자교육회 20여 개를 만들어 여성들 계몽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sup>66)</sup>

사회주의계열의 대표적인 항일투사는 허정숙과 황정신이다. 여전사들은 동북항일연군 산하에서 활동하였다. 중국공산당 동만특별위원회의 지도로 반봉건·반제투쟁이 활발하던 1930년에 소년선봉대에 가입했다. 2년 후에는 공산청년단에 입단하여 고된 훈련을 받았다. 임강전투나 안도현전투 등 여러 차례 전투대원으로 참가하여 동지를 격려하였다. 1937년 삼간동전투에서 혁명한 전공을 세워 ‘여장군’으로 칭송될 정도였다.<sup>67)</sup> 아쉽게도 1939년 시베차이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24세 꽃다운 나이로 숨졌다.

이화림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넘나들었던 여전사였다. 자신의 구술에 의한 연구 성과물이나 평가는 아직까지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녀 활동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찾을 수 없다. 상해의거 당시 윤봉길(尹奉吉)과 동행이나 김구 비서로서 역할과 민족주의 세력과 결별 등에 관한 사료 등은 결정적이다.<sup>68)</sup>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사료는 전혀 발굴되지 않아 안타깝다.

최근 나혜석 활동에 주목한 연구도 나왔다. 1921년 10월 남편 김우영은 한국인 최초로 안동부영사로 발령을 받았다. 그녀는 외교적인 특권을 이용하여 의열단원들 무기 운반과 국경지대 통과를 도왔다. 긴박하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나 이를 회피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를 자신의 숙명처럼 알고 행동으로 옮겼다. 와중에도 중국 풍속과 관련된 그림그리기에

65) 『남자현여사약전』: 박영하, 「남자현, 일본 총독 암살을 위해 총을 들다」, 연세대 근대한국연구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열전』, 세창문화사, 2021.

66) 박용옥,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 여전사 연구-30 여전사의 전기들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29,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1995.

67) 리광인, 「그는 이렇게 살았다-공청당원 허정숙에 대해」, 『근대중국조선족녀결』, 211-218쪽: 차경숙, 「불멸의 녀전사-유격대원 황정신에 대하여」, 『근대중국조선족녀결』, 112-124쪽.

68) 박연순, 「로하일녀투사의 자랑스런 생애-리화림어머니에 대하여」, 『근대중국조선족녀결』, 66-81쪽: 이화림 (박경철·이선경 역), 『이화림회고록』, 차이나하우스, 2015: 이선이, 「중국으로 간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이화림의 삶과 투쟁」,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연구소 편저, 『여성사로 읽는 창일독립운동』, 도서출판 항일여성, 2020.

열중하여 조선미술전람회에 특선과 여러 차례 입선하였다. 단동에서 생활은 자신의 화풍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되었다. 또한 현지 한국인 부인들을 위한 여자야학을 운영하는 한편 부인회도 조직했다. 이를 통하여 여성들 지위 향상은 물론 새로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sup>69)</sup> 이는 항일여성운동사의 새로운 지평을 넓힌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 5. 맺음말

일제강점기 여성 대부분은 가정(家長) 결정에 따라 국외 한인사회 일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잔인한’ 숙명이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낯선 이국땅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언어 불통에 따른 소통 부재는 수많은 난관과 더불어 엄연한 현실로서 다가왔다.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임시정부는 남녀평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안창호는 1920년 신년 축하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밝혔다. “국민개병주의라야 하오. 독립전쟁이 공상이 아니요. 사실이 되려면 대한의 이천만 남녀가 다 군인이 되어야 하오. 그 방법이 여하한가요……여자도 배워야 하오. 군사적 훈련을 아니 받는 자는 국민개병주의에 반대하는 자요. 국민개병주의에 반대하는 자는 독립전쟁을 반대하는 자요. 독립전쟁에 반대하는 자는 독립에 반대하는 자요.”<sup>70)</sup> 선언적인 의미와 달리 여성이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외곽단체인 대한애국부인회의 주요 활동 영역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여자계의 연락, 내부의 선전, 정부의 복역, 선전, 선전 자료의 공급, 훈로자 포상, 유족의 위로, 공역자 초대, 대한적십자사 방조(傍助), 외국인 빈상, 개납주의, 성적표 기록 등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sup>71)</sup>

이들 여전사와 달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한 여성들도 있었다. 비록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독립운동가 아내·어머니·동지로서 역할에 충실하였다. 정정화는 임시정부 안살림꾼, 최선화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 연미당은 남편의 든든한 후원인으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 동북지역은 관내와 현지 여건이나 상황은 크게 달랐다.

69) 김형목, 「나혜석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에서 역할」, 『송실사학』 24, 송실사학회, 2010.

70) 안창호, 「우리 국민이 斷定코 實行할 六大事(一년)」, 『독립신문』 1920년 1월 8일자.

71) 김형목, 「1920-30년대 중국 관내와 동북지역, 러시아의 항일여성운동사 검토」,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발표문)』, 55쪽.

1934년까지 무장항쟁 근거지는 바로 이곳이었다. 1910년대부터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쌍성포와 대전자령 전투 등에 한인여성들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항일투쟁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를 전후하여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에 소속되어 해방되는 그날까지 잠시도 투쟁을 멈추지 않는 항일전선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활동은 외형상으로 독립전쟁사에서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결코 과소평가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돌이 지난 시점에서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역사무대 주인공으로 불러내는 작업은 그래서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할 시대적인 소명이다. 온갖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보여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전승해야 한다. 역사무대에 등장하지 못한 채 뒤편에서 '자기역할'에 충실했던 이들 인생향로는 중요한 정신적인 유산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 3·1여성동지회,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8.
- 김경일 외, 『한국 근대 여성 63인의 초상』,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김양 주편, 『근대중국 조선족녀걸』, 북경민족출판사, 1995.
- 김재국 주편, 『중국조선족항일녀투사들』, 료녕민족출판사, 1993.
- 김종국 외, 『중국 조선족사 연구』 I, 연변대학출판사·서울대출판부, 1996.
- 김주용, 『한국독립운동과 만주-이주-저항-정착의 접이지대-』-경인한국학총서 160, 경인문화사, 2018.
- 박문일 외, 『중국 조선족사 연구』 II, 연변대학출판사·서울대출판부, 1996.
- 박용옥, 『한국여성항일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 , 『여성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1,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박주신,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2000.
- 박 환,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 신영숙, 『여성이 여성을 노래하다-일제강점기 한국여성사-』, 늘품플러스, 2015.
-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45)』, 아세아문화사, 1999.
- 심옥주, 『윤희순 평전』,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2009.
- 연길시정협문사자료위원회, 『연길백년교육(1901-2001)』, 2001.
-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항일녀투사들』, 연변인민출판사, 1984.
- 중공연변주위 당사사업위원회, 『연변인민의 항일투쟁』, 연변인민출판사, 1989.
- 이극로 지음(조준희 옮김), 『고투40년』, 아라, 2014.
-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정음문고 65』, 정음사, 1975.
- 허은·변창애 지음,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의 바람소리가-독립투사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 여사 회고록-』, 민족문제연구소, 2015.
- 현규환, 『한국유이민사』 상, 어문각, 1967.
- 강수옥, 「1900~1945년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 여성들의 항일운동」, 『여성과 역사』 29, 한국여성사학회, 2018.
- 김형목, 「나혜석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에서 역할」, 『승실사학』 24, 승실사학회, 2010.
- , 「중국 동북지역 나혜석 답사기」, 『나혜석연구』 5, 나혜석학회, 2014.
- , 「1920-30년대 중국 관내와 동북지역, 러시아의 항일여성운동사 검토」, 『항일여성독립운동

에 대한 회고와 전망(발표문)』,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2019.

박영석, 「남자현의 민족독립운동-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 숙명여대 한국학연구소, 1992.

박용옥,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 여전사 연구-30 여전사의 전기들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29,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1995.

-----, 「1920·30년대 항일여성 의열·무장투쟁」, 『성신사학』 12·13, 성신여대, 1995.

박현옥, 「만주 항일무장투쟁하에서의 여성해방정책과 농민여성」, 『아시아문화』 9,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3.

장세윤, 「만주지역 독립운동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론』 26, 국사편찬위원회, 1996.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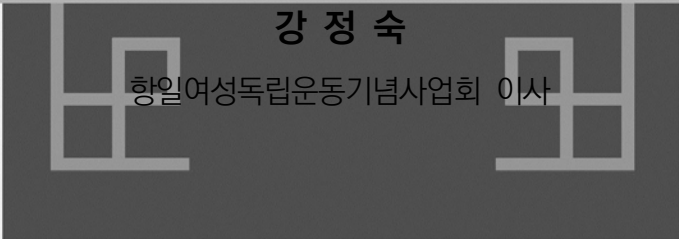
민족·여성해방을 외치며 세계를  
누빈 한국여성들

강 정 숙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강 정 숙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 민족·여성해방을 외치며 세계를 누빈 한국여성들

강 정 속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오늘 다루는 주제는 국외 중에서 매우 강력한 운동이 일어난 곳과 상징적인 인물들을 다룹니다, 상당히 광범한 내용이고 제가 이 부분에 아주 깊은 연구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채 토론을 맡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 1. 정철훈, 알렉산드라를 찾아서 -16통의 편지와 한 번의 만남

1910년대 러시아에서 활동한 여성독립운동가: 김알렉산드라 스텐케비치. 올해 간행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역사가 지운 한인 최초 여성 사회주의자의 일대기』 간행, 정철훈 선생님의 오늘 발표문 등을 보면서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1885.2.22.-1918.9.16.)(이하 김알렉산드라로 약칭함)의 일생을 재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재차 느꼈습니다.

- 김알렉산드라가 최초의 볼셰비키로서 한인사회주의 운동이나 한인사회당에 성립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생각하는 민족해방운동의 조직형태, 러시아에서의 한인 민족해방운동은 어떠한 특성을 가졌을까요. 한인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졌지만 그가 한인조직체에 대표가 된 적이 있는지. 없다면 당대 볼셰비키로서의 정치적 입장과 관련되는 것일까요?
- 발표문 5쪽에 ‘질문과 답변이 계속될수록 이 걸출한 여성혁명가는 비애와 상처를 간직한 가련의 대상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고 하셨는데 이는 이인섭과 편지 교류한 이들 사이의 글에서 느낀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꽤 궁금합니다. 전 위인도 개인사에 있어 고민하고 후회하며 잘못 판단하기도 한다고 보며 따라서 좀 인간적 면모가 잘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그 인물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린 아들들을 두고 활동하고 사형당한 여성운동가라면 더욱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몇 가지 실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출생지에 대해 : 2021년 정철훈선생님 책에 의하면 연해주 이주한인 마을 시넬리코보에서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곳을 쑤이펀허 지역이라고도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의 접경지역인 까닭에 러.중이 공용하는 지명인가요? 조선인 군‘위안부’가 동원되었던 동녕시와 바로 마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중소 양안의 특징을 짚어주시옵.

## 2. 이명화. 미주 지역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항일여정

- 쉽지 않은 미국의 여성독립운동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주 한인여성의 독립운동은 미국 자체 내 한인사회특성의 유지와 단결력 강화 및 확장, 한국의 독립운동 지원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운동방식이나 성격을 보면 한말 일제 초 여성독립운동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 내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주 내 한인여성들은 자유주의하의 남녀평등 등 여성운동과제에서부터 이민 간 동양계 여성들의 정치사회권리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20세기 초 미주 한인여성독립운동 내에서는 이러한 과제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었는지 또 구현되지 못한 부분은 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 발표문 6쪽에 고국에서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여학교를 나온 여성들이 사진신부를 지원하였으나 상대인 이민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문맹이거나 초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남자들이었다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이 점을 ‘사진신부의 학력이 높았고 이 점에서 미주 한인사회는 변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만 언급하였지만 실상은 자못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집단적 노력이 있었는지. 선생님 발표문 8쪽 안정송(본명 이정송)은 상당한 경력을 가진 인물인데 그의 도미 목적이나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미주의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미국을 떠나 중국 등지에서 활동한 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실제 한국에서 국외지역의 운동을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만 부탁드립니다.

- 강력한 자본주의국가로 성장하던 미국 내에서도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회주의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의 한인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순의 딸 현앨리스(정병준, 『그의 시대 : 역사에 휩쓸려간 비극의 경계인』, 파주 : 돌베개, 2015)와 현피터 등은 사회주의계 활동으로 나아갔는데 이들과 교민사회와의 상호연관성은 없는지요. 나아가 미국에서의 사회주의(공산주의)운동과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성은 없었나요. 선생님이 검토하신 내용 중에 이러한 모습을 확인하였다면 듣고 싶습니다.

### 3. 김형목. 중국 동북지역 항일여성들의 인생향로

- 한말 일제강점 하 우리 민족의 숨통을 트이게 한 곳이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 및 러시아 지역이라고 봅니다. 육로로 이동할 수 있고 국내와 교류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연구와 지역발굴이 필요한 곳이나 분단으로 인해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목 선생님 글을 통해 3.1운동 전후 이 지역의 여성독립운동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한 자료와 영역이라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을 질문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앞으로 과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동북지역은 선생님도 언급하신 바대로 조선여성들의 항일활동이 강력한 곳입니다.
- 13쪽 근대 중국 조선족 여걸이나 연변항일 투쟁에서 민족 구분이 안되어 있어 전체 여성 중 조선족 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 지역은 조선인 비율이 높고 일본군과 전투도 잦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 조선인 혹은 조선인 여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졌는지요. 현장에서는 민족별, 계급별, 젠더별 복잡한 변수들이 난무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것을 시기별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운동에 참여하도록 했는지 궁금합니다.

광범한 지역의 여성독립운동을 다루고 있어 우리의 과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연구를 기대하며 세 분 선생님 발제와 이러한 장을 마련해 주신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등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